

Final Report

UNESCO Volunteer Project 2016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제4기 활동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6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활동보고서

CONTENTS

5

1. 유네스코
블런티어 프로젝트 소개

11

2. 2016 제4기 유네스코
블런티어 프로젝트 소개

17

3. 프로젝트 진행경과
참가현황

4. 팀별 최종보고서 (25개 프로젝트)

1. 강릉원주대학교 KUSA	30	14. 심봉사	155
2. 강아지똥	43	15. 아르스(ars)	161
3. 꿈나눔	48	16. Earthlings	171
4. 나그리다	54	17. 에코브릿지	178
5. 다살이행복	64	18. 여기는 예코	189
6. 동(同)아시아	72	19. 예그리나	198
7. 리.마.베.	77	20. 울림	210
8. 美생물	86	21. 지구인	218
9. MINGlish	94	22. 캠퍼스CC	227
10. 보동보동	107	23. 크레센도	234
11. 보듬이	116	24. 프론티어	243
12. 소행성	128	25. 한울한울	249
13. 솔롱고스	143		



1.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소개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소개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UNESCO Volunteer Project)는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환경과 인권 보호 등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들을 청년·대학(원)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천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매년 전국 청년·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동아리·팀 (4인 이상 12인 이하) 프로젝트를 약 20~30팀을 선발하여 최대 120만원의 실행지원금과 더불어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참가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제	세부주제
인문/사회	평화, 역사화해, 차별철폐, 인권, 청년 등
문화	문화다양성, 지역문화, 문화 간 교류 증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자연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보호 등
환경/생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호, 동물복지 등

※ 위 주제에 관한 홍보, 교육, 증진(보존) 활동 수행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전국 기존 청년·대학(원)생 동아리 혹은 프로젝트를 위해 구성된 팀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대학(원)생이라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지도/자문 교수 위촉), 프로젝트의 목적, 독창성, 실천 가능성, 성실성, 지역사회 연계, 파급효과를 선발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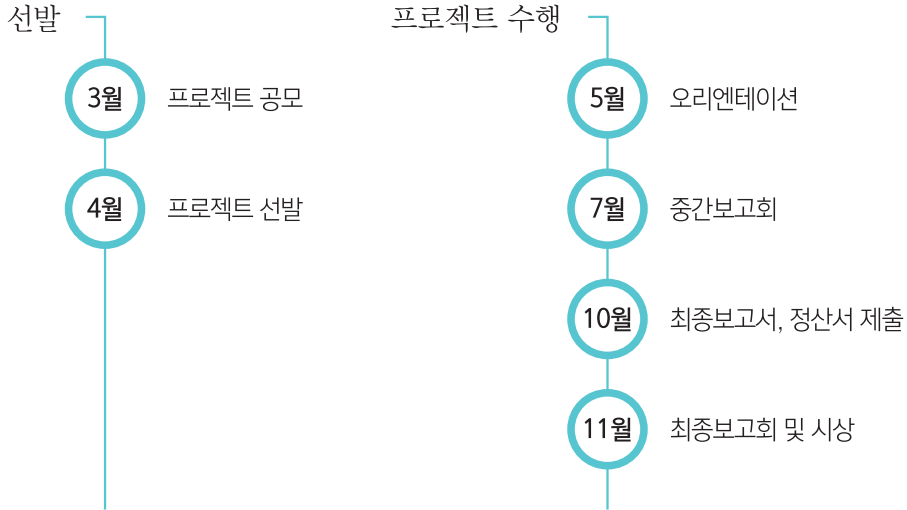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팀들은 우대합니다.

- ① 외국인 유학생 또는 사회적 소수자가 팀원으로 속한 동아리(팀)
- ② KUSA(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회원이 포함된 동아리(팀)
- ③ 동아리 간, 학교 간, 동아리-지역사회 간 연합 프로젝트
- ④ 지역사회와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
- ⑤ 비수도권 대학 소속 동아리(팀)
- ⑥ 2~3년제 전문대학 동아리(팀)
- ⑦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프로젝트 실시팀

프로젝트를 완수한 팀원들에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참가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영상/서면 등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대식, 중간보고회, 최종 발표회 참가 필수)

그리고 프로젝트를 완료한 팀 중 우수 프로젝트를 선발해 연말 시상식에 대상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상 및 상금 시상) 및 최우수상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및 상금 시상)을 시상합니다.

추진일정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는 청년·대학(원)생들이 전지구적 현안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구·동료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일련의 활동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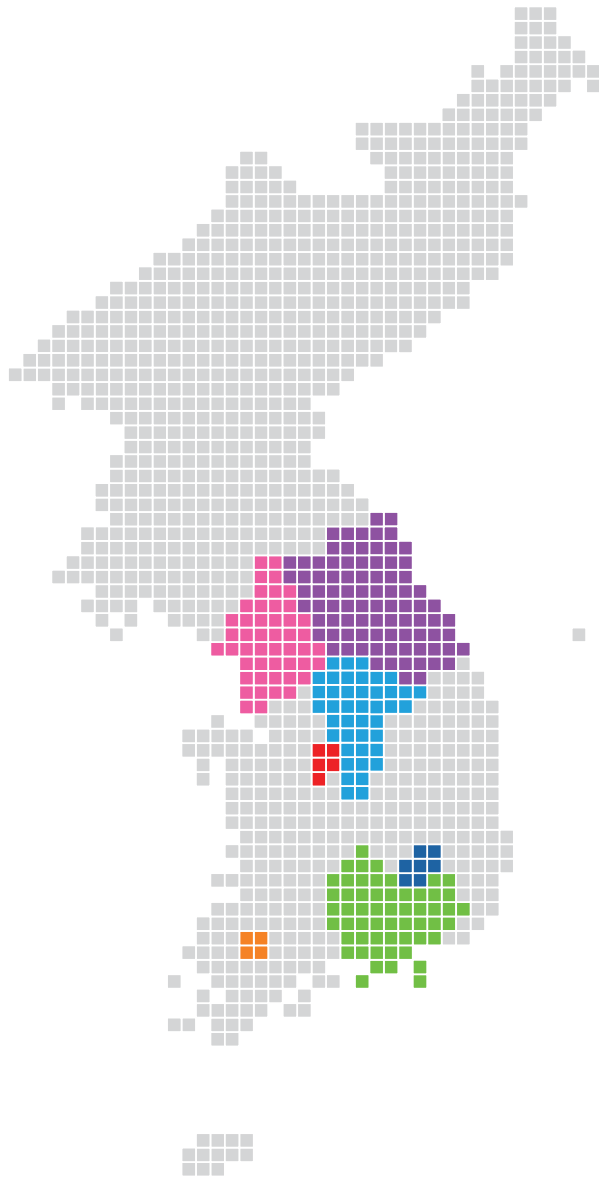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2016년 4기까지 총 101개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팀들은 직접 선정한 주제에 관해 자발적, 능동적으로 다채로운 접근을 하였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프로젝트 팀들은 ‘미래마켓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청소년 놀권리 회복 캠페인 및 대안적 놀이터 조성’, ‘장애인·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철폐’, ‘동물복지 인식 개선’,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홍보’, ‘새터민 교육봉사’, ‘기후변화교육 활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유네스코는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인 청년을 동등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직접 실천에 대한 적극적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대학(원)생들이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유네스코 이념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16 제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참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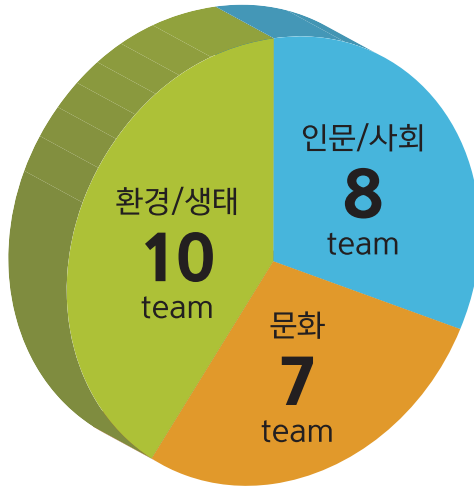
참가팀 지역분포



■ 수도권	14팀
■ 광주	3팀
■ 대구	1팀
■ 대전	1팀
■ 강원	3팀
■ 경남	1팀
■ 충북	2팀

합계 25팀

참가팀 활동주제



주제	세부주제	팀수	참가팀명
인문/사회	평화	1	아르스
	차별철폐	4	MINGLISH, 크레센도, 리.마.베., 동아시아
	인권	3	예그리나, 소.행.성., 나그리다
문화	문화 간 교류 증진 (다문화)	5	한울한울, 心봉사, 솔롱고스, 보듬이, 다살이행복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	강릉원주대KUSA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	울림
환경/생태	생물다양성	1	에코브릿지
	기후변화	2	캠퍼스CC, 꿈나눔
	동물복지	2	Earthlings. 강아지똥
	기타 - 지속가능한 환경	5	프론티어, 지구인, 여기는 예코, 보동보동, 美생물

참가팀 명단

번호	팀 / 동아리 이름	주제	프로젝트 제목
1	강릉원주대학교 KUSA	환경/생명	culture shock
2	강아지똥	환경/생태	Do it
3	꿈나눔	환경/생태	두드림 지구의 건강을 꿈꿈!
4	나그리다	인문/사회	다시 돌아가는 다문화, 하나그리기 프로젝트
5	다살이행복	인문/사회,문화	다문화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휴토피아'
6	동(同)아시아	인문/사회	동(同)아시아? 통(通)아시아!
7	리.마.베.	인문/사회	우리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8	美생물	환경/생태	미생물 인식개선 프로젝트
9	MINGLISH	인문/사회	새로운 배움터
10	보동보동	환경/생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자연순환)
11	보듬이	인문/사회,문화	영영(young+映)프로젝트
12	소.행.성.	인문/사회,문화	놀(NOL) 라잇 : Network Our Lives
13	솔롱고스	인문/사회,문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오작교 프로젝트
14	心봉사	문화	타문화에서 다문화로
15	아르스(ars)	인문/사회,문화	Take down gun, together (우리, 총을 내려놓자)
16	Earthlings	환경/생명	공장식 축산환경의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비교
17	여기는 에코	환경/생태	추억을 새로운 추억으로
18	에코브릿지	환경/생태	사람과 자연의 동행

19	예그리나	인문/사회	찬봄 (Chandraban Volunteer/Voluntary Movers) 프로젝트
20	울림	문화	그날의 의미
21	지구인	환경/생태	Earth(us) Gardening
22	캠퍼스CC	환경/생태	기후변화 인식 개선
23	크레센도	인문/사회	배제에서 포용으로
24	프론티어	환경/생태	더 필 - The Pill
25	한울한울	인문/사회	한울한울 프로젝트



3. 프로젝트 진행경과

발대식 (2016. 5. 13~14.)



중간보고회 (2016. 6. 30.)



활동보고회·시상식 (2016. 11. 11.)



수상 프로젝트 소개

대상 : 사람과 자연의 동행 (전남대학교 에코브릿지)



환경 파괴에 의해 보금자리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다른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를 뜻하는 이름의 ‘에코브릿지’ 팀은 생태계에 관심 많은 생물학과 학생들과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시각디자인 전공자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에코브릿지’는 자연과 사람의 통로가 되어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보전의 문제에 대해 알리고자 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탐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카메라에 담아 가거도 생물 사진전을 개최하고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한편,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캐릭터 제작, 학생들 대상으로 한 생물 다양성 교육,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참가 등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주제를 무겁게 가져가지 않고 보다 사람들이 쉽고 친밀하게 주제를 접할 수 있게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과 생물 다양성 문제를 알리며 동물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에코브릿지’는 ‘사람과 자연의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명처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수상 : 휴토피아 (인천대학교 다살이행복)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위해 모인 ‘다살이행복’ 팀은 다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름대로 다문화·비다문화 가정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고자 ‘휴토피아(Human+Utopia)’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들이 함께 마을 활동을 진행하여 마을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키우고, 서로간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 시연,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차별 해결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지역센터와 협력한 다문화축제 부스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역 바자회에 참가해 각 나라의 문화를 살려 놀이 축제를 기획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 ‘다문화는 약점이 아닌 강점’이라 강조하며 부정적, 차별적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수상 : 놀(NOL) 라잇 : Network Our Lives (연합동아리 소.행성.)



과도한 경쟁과 바쁜 삶에 지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놀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문제 의식을 느껴 구성된 ‘소행성’은 팀 이름처럼 소통, 행복, 성장에 가치를 두고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중들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SNS 운영을 통해 놀 권리에 대해 알리고, 이후 도봉교육복지센터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대안적이고 협동 중심적인 놀이문화를 생산하고 청소년들에게 놀이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놀 권리’의 다른 말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소행성은 놀이를 통해 지친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듯, 소통하고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에 놀 권리 회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원구의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청소년의 대안적 놀이문화 형성에 기여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수상 : 찬봄 (Chandraban Volunteer/Voluntary Movers) (서울여자대학교 예그리나)



‘예그리나’는 서울여자대학교 소학회로서 인도의 불가촉천민 마을인 ‘찬드라반’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인 도움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인도 오르차 지역의 불가촉천민 마을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그리나’는 국제사회에 관심 많은 여대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2014년부터 찬드라반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그리나는 직접 그들만의 사업 물품을 디자인 제작하고 판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대중들에게 인도의 인권실태와 찬드라반의 상황을 알려 해외 빈곤지역과 아동교육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찬드라반 방문교육에 앞서 여성 위생 지원을 위한 면생리대와 아동교육을 위한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준비했습니다. 올 12월에 직접 인도로 떠나 봉사를 실천할 예그리나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장려상 :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자연순환) (대구대학교 보동보동)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제로 구성된 ‘보동보동’은 보건 학술, 봉사에 열정 가득한 열두 명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보동보동의 프로젝트는 환경문제가 자원 고갈과 오염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보동보동은 환경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쓰레기 배출에 있다고 보고 이곳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활동 및 환경운동 참여 유도를 기획했습니다. 대학 축제기간 동안에 쓰레기 재사용을 장려하고 쓰레기 배출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는 한편, 오염된 화단을 살리는 게릴라 가드닝 활동,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 나눔 활동 등을 통해 대중들을 보다 쉽게 환경운동에 동참시키고자 했습니다.

환경운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하는 보동보동은 지역사회와 대구대학교 학생, 교직원들과의 꾸준한 협의로 더 나은 교내 환경, 건강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장려상 : Earth(us) Gardening (중앙대학교 지구인)



전

후

‘우리는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 라는 슬로건으로 땅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 ‘지구인’은 도심 속 버려진 땅을 청소하고 꽃과 식물을 심는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 앞 화단에서 시작하여 관리되지 않은 빌라의 부지, 쓰레기가 방치된 놀이터, 주택가 앞 버려진 공간 등 다양한 장소를 택하여 게릴라 가드닝을 펼쳤습니다. 활동은 더러운 장소를 먼저 청소하고 오염된 흙을 털어내어 꽃과 식물, 자갈을 심고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벽을 페인트로 칠하여 꾸미기도 했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던 장소를 꽃이 피는 아름다운 화단으로 가꾸는 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과정에서 주민들과 교감하고 추후 관리에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여유와 친목을 가져다주는 데 보탬이 된 지구인은 환경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꽃을 심는 자그마한 행동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갈 수 있어 감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구인은 주민들의 칭찬과 행복을 벗 삼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장려상 : 더 필 – The Pill (한남대학교 프론티어)



폐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성된 ‘프론티어’팀은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들을 올바르게 수거하고 처리하여 환경을 보고하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의약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활동 시작에 앞서 보편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폐의약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카페에 배포하는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약국에 유통기한 스티커를 비치하여 환자들이 스티커를 통해 의약품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프론티어의 홍보활동 캠페인 결과, 활동지역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가 증가했고 그린약국(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제도를 도입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4. 팀별 최종보고서 (25개 프로젝트)

강릉원주대학교 KUSA



동아리(팀)명	강릉원주대학교 KUSA		
프로젝트 명	culture shock		
소속 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동익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2	원민식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3	강민주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4	조돈우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5	문상봉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6	박호국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7	이은혁	강릉원주대학교	전자공학과
8	이현우	강릉원주대학교	전자공학과
9	이범주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10	엄정은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1	박형원	강릉원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지도 교수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활동 이야기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KUSA팀은 강릉 지역의 문화 및 유산을 외국인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활동 분야)을 주된 목적으로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인 강릉 단오제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고, 외국인들과 동행하여 강릉의 문화축제인 단오제뿐만 아닌 커피축제, 주문진 오징어축제, 오색달빛축제 견학과 강릉의 문화 명소인 오죽헌, 선교장, 소돌아들바위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한 강릉 단오제를 학교 대외협력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강릉 단오 홍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강릉단오 역사박물관, 단오제 다도문화, 소원성취 부적 쓰기, 관노가면탈 목걸이 만들기, 씨름 체험, 단오 굿다리 건너보기, 한복입기 체험, 관노가면극 관람, 신주 및 단오음식 체험을 하였습니다. 단오제 구경 중 단오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강릉단오제 체험 유무” “한국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체험 후 느낀 점” 등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최한 청소년 단오축제 D.Y.F에 우리 KUSA팀이 강릉 단오 홍보활동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단오축제 D.Y.F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릉 단오제의 역사 및 유래, 또한 단오가 강릉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도 행해지는 문화제이며 왜 강릉단오제가 세계 무형문화제로 등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시를 통하여 한국뿐이 아닌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에도 단오의 존재성과 강릉단오 설화를 소개하였습니다. 부스 주변으로는 투호 놀이 연날리기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강릉명주 나이트마켓입니다. 이 날 우리 팀은 프리마켓을 통해 간략히 강릉 단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불편한 점은 없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외국인 친구들과 강릉 단오 후기 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팀 7명과 외국인 친구 2명과 강릉 단오제를 견학 후 강릉 단오제의 인식변화, 또한 후기 평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린든(말레이시아)친구는 단오제를 처음 다녀오면서 굉장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한국 또 강릉이라는 지역도 잘 몰랐는데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신림(중국)친구는 중국에도 단오가 있는데 중국 단오와 한국 단오는 굉장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 입는 것 모든 체험활동들이 많이 다르다고 하였고 단오기간동안에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친구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고, SNS를 통하여 꾸준히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강릉 오색달빛축제 야행의 나이트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볼런티어 4기팀 울림 팀과 나그리다 팀 활동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KUSA 팀이 대신하여 오색달빛축제 야행 in 나이트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후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우리 KUSA 팀은 광주 팀 에코브릿지 팀과 함께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홍보할 강릉의 문화축제 및 문화명소지 등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미리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은 볼런티어 4기 팀인 에코브릿지 팀과 함께 전라남도 광주지역으로 직접 이동하여 강릉 문화축제와 문화명소지를 알리기 위해 프린지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스티커 참여도 조사와 강릉문화 및 축제에 대해 홍보를 하였고, 에코브릿지 팀의 멸종 위기동물 부스운영도 함께 어우러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활동으로는 명주프리마켓을 하였고, 이날은 에코브릿지 팀이 진행하는 멸종위기동물 홍보활동을 대신하였고, 직접 제작한 멸종위기 동물 타투스티커로 나이트마켓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KUSA 팀이 마지막으로 활동한 외국인 친구들과의 강릉문화축제탐방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탐방 활동은 2일에 걸쳐 이어졌으며 4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여하였고 이 친구들과 함께 강릉의 문화명소지인 오죽헌을 시작으로 코스모스길, 강릉의 부자집인 선교장, 강릉 커피축제, 주문진 오징어축제, 주문진 어시장, 소돌아들바위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울곡이이를 낳았으며, 예술가인 신사임당의 집인 오죽헌을 시작하여 강릉의 문화를 전하였고, 선교장으로 가는 길 코스모스 축제에 참여하여 추억을 만들고 조선시대 강릉의 최고 부자집인 선교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커피의 고장 강릉에서 열리는 강릉 커피축제에 참석하여 100인의 바리스타의 커피 시음과 강릉 커피빵 그 외 먹거리 볼거리 놀 거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주문진 오징어축회에 참여하여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오징어회 시식, 버스킹 공연 관람, 오징어 O.X 퀴즈 참여, 소돌아들바위 견학으로 KUSA 팀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KUSA 팀의 대표적인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릉 단오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릉 단오제를 홍보하면서 영어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체험하기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함께 진행하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욱 자세하게 강릉 단오제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활동으로 우리는 나이트 프리 마켓, 설문조사, 사전투표 등을 통하여서 강릉 단오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설문이나 투표의 참여도가 낮아 어려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표 량 때문에 자세한 통계를 낼 수 있어서 강릉 단오제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연령대 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통계자료는 강릉 단오 문화 위원회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활동 소감

팀장 김동익 어려서부터 나는 학교 학생회 같은 간부 직위에 관심이 많았으며 내가 지도자로 팀을 만들고 내가 중심으로 함께 무엇을 계획하여 팀원이나 임원진과 같이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이번 프로젝트도 올해 학년 마지막 활동으로 친구(부팀장)의 권유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학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팀을 꾸려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분은 타 학교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같은 지방대학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그 어느 팀보다 더 월등하다 판단하여 처음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에는 세상 다 가진 기분이며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다. 6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11명의 팀원들과 함께 우리의 목적을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깝게 잘 이루었다 생각한다. 나를 중심으로 뒤에서 많은 지원해준 부 팀장과 회계, 기획부장 또 그 뒤를 함께 뛰어와 준 고마운 나의 팀원들 항상 감사하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2가지를 배워 간다. 첫 번째는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한 나중에 문화유산 뿐 아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잘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과 사람간의 예의와 능력 존중 등 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배워간다. 볼런티어

프로젝트는 나의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비슷한 일에 대해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 프로젝트를 학교 동아리 후배들에게는 물론 주위 친구들에게도 알려 줄 것이다. 6개월 동안 모두 수고 많았다.

부팀장 원민식 대학생활 중에 대외활동 안 해보고 마지막 학년을 보내기 아쉬워하던 중에 내가 소속된 강릉원주대학교 KUSA 동아리에 유네스코한국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볼런티어 프로젝트 관련 공지가 등록되었다. 공지를 보자마자 솔깃해서 바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관련 글들을 찾아보았다. 다양한 주제로 볼런티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로서 '문화'를 선택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볼런티어 프로젝트이다 보니 팀원들을 구성해서 참여하였고 그중에서 나는 부팀장으로서 참가하였다.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합격하고서부터 처음 하는 대외활동에 설렘이 가득했다. 문화라는 콘텐츠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강릉 단오제를 학생의 눈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교 축제 기간에 관노가면극의 양반광대 분장을 하고 단오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광고물을 각 단대별로 부착하였다. 처음 홍보활동을 시작하니 단오제 기간이 어서 오기를 두근두근 기대했다. 우리 강릉원주대 KUSA 팀의 대표적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2016 강릉 단오제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2016 강릉 단오제는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었다. 첫날과 둘째 날에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한복 입기, 차 마시기, 신주 맛보기, 민속놀이, 단오 음식 맛보기, 난장 체험 등 단오제의 많은 문화를 경험했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현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우

리 팀원들과 함께 유학생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기뻐다. 강릉 단오제 주말 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D.Y.F축제에 참여하여 강릉 단오제의 문화적 의미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 더운 날씨에 진행된 축제라 많이 지쳤지만 어린 친구들에게 단오를 홍보하고 가르쳐줄 수 있어서 단오를 모르고 즐기던 내 어릴 적이 생각나서 감회가 새로웠다. 강릉단오제를 마무리하면서 사후 설문을 위해 강릉에서 매일 활발히 진행중인 명주프리마켓에서 야광 팔찌를 판매하면서 설문지 작성을 받았다. 나이트마켓으로 진행이 되서 조명에 한계가 있어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죄송했다. 8월에는 올해 처음 강릉에서 시행된 오색달빛강릉야행에서 서울의 나그리다팀의 에코백과 보틀 그리고 올림팀의 위안부 팔찌를 판매했다. 판매수익을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려는 두 팀의 활동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판매했다. 생각보다 장사가 쉽지않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강릉야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기분좋은 경험이었다. 프리마켓에서는 다른 팀의 활동을 응원하는 활동을 했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유학생 친구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활동을 했다. 강릉하면 떠오르는 오죽헌과 선교장 그리고 강릉 사람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주문진 오징어축제를 체험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겁게 따라와 준 유학생 친구들에게 고맙고 함께 활동을 진행해준 팀원들에게도 정말 고맙았다. 처음으로 한 대외활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보면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서 기뻐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

기획 강민주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팀은 학교 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한국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다는 고민 중 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그리고 강릉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강릉에 대해 정보를 찾고 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강릉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다는 거에 부끄러웠고, 조금 더 강릉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볼런티어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 활동들을 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회계 조돈우 볼런티어 프로젝트는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 채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해보자는 의지로 출발했다. 프로젝트는 보람차게 진행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릉을 알리고 단오를 알리고 또 그 과정에서 친구가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었지만 우리의 진행 방식을 잘 따라 주었고 또한 참여율도 좋았으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서 진행을 하는 내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좋은 친구들과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만약 이런 기회가 다시 한 번 찾아온다면 이번 진행을 통한 부족한 점과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

팀원 엄정은 처음 볼런티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볼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순간순간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활동을 하기 위하여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홍보물을 만들면서 힘들기 보다는 오히려 재밌고 과연 완성품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다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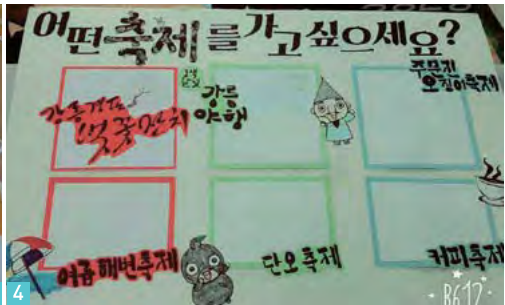
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고 설렐었습니다. 또한 강릉의 소중한 문화인 강릉 단오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과 활동했을 때에는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 우리의 문화를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기 동안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닫고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볼런티어 4기 활동을 재밌고 뜻깊은 활동으로 만들어준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팀원 이은희

나는 이번 봉사를 처음 하면서 멤버들과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우선 제일 좋았다. 처음 1학기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부탁하고 말을 건다는 것이 어렵고 부끄러웠다. 이 프로젝트는 그런 것을 극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강릉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과 강릉 단오제, 선교장, 오죽헌 등 축제와 행사들을 다니면서 외국인 유학생들보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서로 우정도 돈독해지고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들도 생기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비록 하면서 몸도 힘들 때도 많았고 피곤한 점도 많았지만 다 같이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하면서 더욱 자세히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볼런티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지식들도 쌓은 것 같다. 이렇게 긴 듯이 짧은 듯이 보냈던 시간들이 나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볼런티어

활동을 같이 해 준 팀원들에게도 더욱 적극적이지 못 했던 것이 미안하고 함께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친해지면 좋겠다.

활동 사진



- 1,2_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참여 with 에코브릿지
- 3,4_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강릉홍보물 제작
- 5_ 오색달빛 강릉 야행 in 명주프리마켓
- 6_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참여 with 에코브릿지

활동 사진



7 8



9 10



11 12



13_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참여 with 에코브릿지
 8,9,10_ 유학생과 강릉문화탐방 in 오죽헌
 11,12_ 유학생과 강릉문화탐방 in 선교장

활동 사진



25_ 유학생과 강릉문화탐방 in 커피축제
26_ 유학생과 강릉문화탐방 in 주문진수산물시장
27,28,29_ 유학생과 강릉문화탐방 in 주문진오징어축제

강아지 똥



동아리(팀)명	강아지 똥		
프로젝트 명	Do it		
소속 학교	중원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송철항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	박지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	최운규	중원대학교	일본어학과
4	김민송	중원대학교	일본어학과
5	주기철	중원대학교	영어학과
6	김기열	중원대학교	영어학과
7	김성훈	중원대학교	영어학과
8	김태경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9	최재순	중원대학교	경영학과
10	정성실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1	이지선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지도교수	박현준	중원대학교	

활동 이야기

우리는 ‘강아지 똥’입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2016년의 채 일 년이 되지 못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 팀이 되어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Do it!’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동물권이 경시되고 동물학대가 공공연하게 지속되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SNS에서도 키우는 반려 동물의 사진은 많이 올라오고, 또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동물을 물건처럼 예뻐할 뿐, 정말 사랑하고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악한 동물권에 대해서 알리고 제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물론 동물권에 대한 사람들 스스로의 자각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대부분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권에 관련한 법조항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인 우리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동물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하고자 하는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힘을 더한다면 우리는 비단 12명의 힘이 아니라 더 엄청난 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이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어 우리는 팀명을 'DO It!'으로 정하고 직접 발로 뛰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의 학교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체육대회로 활기가 넘치는 중원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의 말에 경청을 해주는 모습에 우리는 놀라웠고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팀 '강아지똥'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동시에 홍보하였습니다. 우리는 구두로 하는 설명 외에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홍보였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페이스북 어플을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한 홍보야 말로 가장 쉽고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들간 진행한 서명활동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얻을 수 있었고, 'Do It!' 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고, 이번 서명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여름방학 중에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개로 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조는 방학 때에도 학교나 그 주변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는 더운 여름날, 서울에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한 동대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작한 현수막과 광고지, 그리고 유네스코 티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동대문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 눈총을 받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우리의 활동목적과 동물권 향상에 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정성껏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조는 청주에서 서명운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청주는 확실히 서울보다 사람이 적었으나,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서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제 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DO It!’은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옮겨 붙인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타올라 사람들에게 동물권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동물권이 유린되지 않는 우리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16년은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와 함께 했습니다. 활동 중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한 팀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팀 ‘강아지 똥’에 모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목표에 열정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룬 바는 비록 작은 한 발자국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 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선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강아지 똥’팀의 ‘Do It!’프로젝트는 저물어가는 16년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준 유네스코에 감사인사를 하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사진



- 1_ 교내체전서명운동
- 2,3_ 서울홍보 및 서명운동
- 4,5_ 청주홍보 및 서명운동

꿈나눔



동아리(팀)명	꿈나눔		
프로젝트 명	두드림 지구의 건강을 꿈꿈!		
소속 학교	승실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이주현	승실대학교	문예창작
2	주동준	승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
3	강아현	승실대학교	기계공학
4	국혜민	승실대학교	국어국문
5	문진혜	승실대학교	사회복지
6	신동준	승실대학교	사회복지
7	조서영	승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
지도 교수	이진환		

활동 이야기

미래 마켓의 활동 목적은 평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했던 행동이 가까운 미래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환경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결과를 사람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오염의 결과를 직접 느껴볼 수 있고 이는 환경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단순한 인식의 개선이 아닌 행동의 변화까지 유도하고자 한창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미래 마켓의 세부적인 활동 내역으로 7월 2일 프로그램의 진행은 사전 답사를 통해 아이들의 수준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했다.

먼저 아이들과의 어색함을 없애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퀴즈와 접목시켰다. 퀴즈는 환경 관련된 것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팁이나 아이들이 착각하기 쉬운 분리수거 문제 및 환경상식이었다. 다음 프로그램은 미래 마켓으로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가 준비해 둔 미래의 식량 물품을 모두 칠판에 붙여 두었다. 뒤쪽에 보이지 않게 점수를 매겨 놓았는데 미래에 비싸질 물품은 3점, 값이 떨어질 물품은 모두 1점으로 정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아이들이 50년 뒤에 비싸질 물품과 싸질 물품을 정해 칠판에서 물품을 가져와서 각 팀에 배정되어 있는 선생님들과 점수를 계산한 뒤, 미래에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했다. 아이들과 충분한 토론을 나눈 후에,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어린아이들한테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을 교실 바닥에 두고 분리수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과 환경교육을 끝낸 후에는 지금도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단백질 주 섭취가 될 대체식품 중 하나인 곤충 쿠키를 시식하는 경험을 했다.

9월에 진행한 활동은 앞선 7월의 활동과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를 풀고 나서 미래 마켓을 진행했다. 다만 7월의 미래 마켓과 다르게 대상 학생들의 연령층이 4,5,6학년의 고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과 물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다. 때문에, 제품의 값이 현재의 값과 가장 차이가 나지 않게 제품을 골라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의 가격에 대해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 했다. 학생들은 온난화가 지속되면 바다의 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한류성 어류는 점점 줄어들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는 힌트를 얻어낸 뒤에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의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것과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꽁치의 값이 비싸진다는 개념 같은 것들을 미래 마켓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화되는 생태계를 경제놀이와 접목시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지향했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곤충 쿠키 시식을 해보았는데 대체식품을 직접 본 아이들은 환경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직접 오염된 물이 어떻게 정화될 수 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물정화 키트 실험을 시행했다. 자갈, 모래, 흙, 숯 등 여러 물체를 이용해 직접 물을 정화해 보는 실험은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던 물이었기에 아이들이 직접 해본 실험은 식수 및 생활용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10월에 진행했던 교내 활동은 숭실대학교 학생들한테 유네스코 꿈나눔 팀의 활동을 알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내용과 시행 사진이 적힌 자료로 판넬을 만들었고 이를 가지고 교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한테 미래 마켓이 무엇이고 그 취지를 알려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환경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했던 활동 중 ‘곤충 쿠키 시식’을 열어 시식을 원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시식 기회를 주고, 반응을 살폈다. 대부분 질색하다가도 생각보다 맛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사전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었다. 7월 2일에 진행했던 캠페인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저학년 위주였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던 꿈나눔 팀 구성원들은, 사전조사를 간 뒤에 미래 마켓의 원래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였으며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니 제품의 가치 변동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급하게 팀 회의를 마련하여 미래 마켓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만큼이나 변할까’에서 ‘어떠한 제품이, 왜 변할까’ 이 물음을 환경 변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우리 또한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래 마켓은 50년 뒤의 제품의 가치가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가지는 과정 및 이유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함부로 50년 뒤 제품의 가치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모든 물품에 대한 가치판단은 지금 현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고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두 번째 진행했던 미래마켓의 제품가격은 현재 가격에서 *10과/10으로 정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따라와 주었다.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되어 흥분한 기분이 든다. 소감으로 먼저 계획했던 미래마켓을 성공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느껴주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캠페인 하면서 중간 중간 분리수거를 해보는 활동과 곤충 쿠키 시식 그리고 물정화키트 실험 등 계획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생각이 상으로 정말 잘 따라주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준비했던 팀원들도 매우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결연학교 학생들과 활동하는 것도 염두에 있었지만, 저학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프로그램이 좋아 고학년도

한 번 진행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신대림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실, 여러모로 부족함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을 사랑하는 진심을 전하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이라는 가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미래를 함께 살아나갈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했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팀들과 함께한 중간점검 및 워크숍 등은 캠페인 진행의 어려움을 미리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SNS홍보를 통해 다른 팀의 정보를 듣고 우리의 홍보물도 알리는 활동이 환경의 소중한 전파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팀들의 SNS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또 캠페인 진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추진력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메신저로 물어보았을 때,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신 계은진씨를 비롯한 유봄 팀께 너무 감사드린다. 프로그램 예산 및 집행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 유네스코 차세대 팀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연계학교를 찾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학교에 공문을 내려주시고 전화까지 주셨던 분을 포함 전반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꿈나눔 팀의 미래 마켓을 뽑아주시고 지원해주신 유네스코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도, 지구의 건강을 꿈꿈! Do Dream.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미래식량 가격에 대한 토론
- 2,3_ 신대림초등학교 캠페인 진행
- 4_ 미래에 비싸게 변할 제품을 고르는 아이들
- 5_ 미래마켓 진행 후 정수키트 실험
- 6_ 교내 미래마켓 홍보/곤충쿠키 시식체험

나그리다



동아리(팀)명	나그리다		
프로젝트 명	다시 알아가는 다문화, 하나그리기 프로젝트		
소속 학교	연합동아리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신용섭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2	함준형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3	손민경	한국의국어대학교	루마니아어과
4	이진행	강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5	허옥엽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6	양혜원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7	박진주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8	김희원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9	박형순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10	오동건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11	방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자인공학과
지도 교수	박찬기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해마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부적응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해보려 하는데 우리가 편견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인지 또는 둘 다를 포함한 경우인지 궁금했고 모든 부분들이 이해의 부족에서 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시중에는 다문화 가정 및 한국 정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같은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었지만, 반대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문화 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데에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무관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를 무작정 이해하자는 형식적인 의미가 아닌, 다문화와 다름을 재미있게 이해해보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기획할 수 있다면, 다소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다문화에 대해 모두가 즐겁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체험 형식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막연하게 “다문화와 인권, 다름을 이해합시다”의 메시지가 아닌 세상에는 여러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정착하는 편이고, 왜 한국에 오는지 등의 조금은 필수적이면서도 알면 괜찮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에 대한 차별문제 해소에 기여해보고 싶어 하나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캠토링(캠페인+세계시민교육)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기획해보기 위해 국내 다문화 문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공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현황등을 공부 하며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문화 놀이교육을 진행하는 산별아 마을학교 답사, 동작구 다문화 지원센터의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6월 10대부터 시작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를 나누고자 공문을 통한 유네스코 학교의 참여 신청을 받았고, 총 4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방과후 학교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직접 제작한 문화이해 젠가, 다문화 감수성 부루마블, 모의유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시간에 직접 체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즐거운 이해와 토론을 도모하였는데, 수업을 능동적으로 재밌게 참여해주는 학생들을 보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모두가 즐거운 다문화를 생각해 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수업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20대를 중심으로 한 전체 세대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철사인형을 만들어 다름을 이해하는 와이어 아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청계천 장통교에서 진행 된 오프라인 캠페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길거리 부스에서의 체험을 통해 모두가 틀림과 다름,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캠페인 이후 프로그램에 사용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체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각종 문제에 대한 보완 방법을 고민하였고,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정식으로 저희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하나그리기 프로젝트를 끝맺음 지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1. 보고, 듣고, 하는 것의 차이

듣는 것과 조사한 것, 수업을 직접 해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교육에서 최근 다문화에 대해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들어갔기에 고교 수준에서는 잘 따라올 것이라는 조언을 들은 바 있어 내용의 수준을 조금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업에서 체험이 적용되어도 어려운 수업의 난이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변수들로 인한 수업의 딜레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구성원 전체가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도중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바꿔나가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겨우 겨우 변수들을 일일이 조정해가며 첫 수업을 겨우 마무리 지었지만 생겨나는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똑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게 저희 스스로를 교육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수와 변수, 돌발 상황 이러한 요소들은 조사와 리허설이 아닌 처음 투입되어 보는 실제 상황이었기에 더욱 크게 다가온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로 빠질 우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때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빠져버리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그리기 교육 프로그램이 이러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우려하였지만, 실제로 다문화 문제가 다름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대통령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분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난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취지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즐겁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의도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오해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취지, 태도를 취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갈등과 문제의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공부를 통해 함께 이해하고 조금 더 즐겁게 프로그램을 풀어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꾸준한 변동이 있었기에 방법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지속 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팀원들의 체력문제, 지원 학교 선별 과정까지 많은 일들이 발생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왔고 이제 와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1. A는 B로, B는 C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걱정하였던 부분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일까? 과연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일까? 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아이들 그리고 수업 이후 약 2~3달이 지난 지금, 간간히 아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즉시 눈으로 보이는 뚜렷한 성과는 만들지 못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소통해보았던 은행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프로그램 이후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스터디를 하였고, 축제 때 마켓 진행이나 시화공단, 반월공단 봉사도 기획중이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도래울 중학교의 한 중학생 친구는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후 지속적인 기부를 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연락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체험형 프로그램이었기에 너무 즐거웠고 평소 딱딱하게 이해하던 것들을 확실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많은 학생들이 각종 다문화 문제에 대해 인지해 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미약하게나마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이 가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 하나그리기 지속성에 답을 내리다

프로그램 피드백에서 꾸준히 들었던 이야기가 교육 프로그램은 단발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다문화 관련 문제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부드러운 시각으로 해소 될 수 있기를 원했고, 저희의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였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은 모든 학교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했던 양정여고, 은행고 교사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지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기부 포털에 교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저희 수업들이 정식 등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시로 많은 학교, 청소년 수련센터등과 협의하여 소수의 인원과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할 예정입니다. 6개월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 점, 이것이 저희가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두 번째 성과입니다.

활동 소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나그리기를 진행하며 팀원들이 가장 많이 내뱉은 말입니다. 아직은 어린 저희가 다문화를 깊이 이해해 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공교육에서 정식으로 수업하거나, 길거리에서 철사인형을 만드는 일은 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 인식을 생각으로만 남기는 것과 행동으로 직접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딪혀보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문화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볼 수 있었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볼런티어 프로젝트를 통해 나, 나보다 큰 우리,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고, 우리도 사회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성원일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돕는 것,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활동 사진



저는 영남대학교문화원은 UNESCO 동아리 지도교사로서 지난 7월 15일에 나그리다와 우리 4대리 학생들과 함께 진행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입니다. 대학원 동아리가 재공에 교사로부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안으로는 프로그램 사용의 수련과 전문성에 대해서 의견의 미흡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리다 대학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모습을 보고 그런 불안은 이내 사라졌고, 4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선 종교에서 다문화 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컨텐트의 부족과 교사들의 낮은 지식 수준으로 인해 학교가 적극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나그리다에서 준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자들이 겪는 장애를 무도하여 교육의 깊게 진전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나그리다 구성원들의 관심과 열의까지도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했고, 특히 일방적인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을 통해 흥미와 집중을 통해 학생에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이 있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크게 더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그리다 대학원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나는 특별과 대학원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교들이 나그리다와 함께 다양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기부 우수 대학생 동아리로 나그리다를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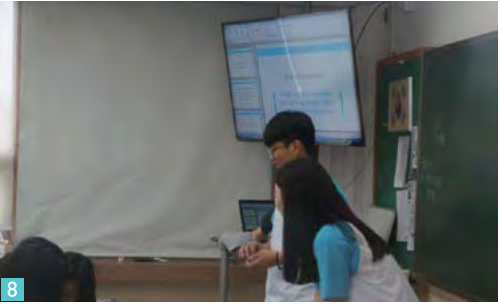


- 1_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실제로 다문화 놀이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를 찾아 답사 영상
- 2_ 교육프로그램 구상을 위한 회의
- 3_ 이천양정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서 -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동아리로 나그리다
- 4_ 중앙대학교 회의
- 5,6_ 하나그리기 프로젝트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활동 사진



7 8



9 10



11 12



- 7_ 하나그리기 교육 프로그램 모의유엔 프로그램
- 8_ 하나그리기 교육 프로그램 마블교육 프로그램
- 9_ 하나그리기 교육 프로그램 젠가교육 프로그램
- 10_ 하나그리기 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프로그램
- 11_ 시흥시 은행고등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 12_ 고양시 도래울중학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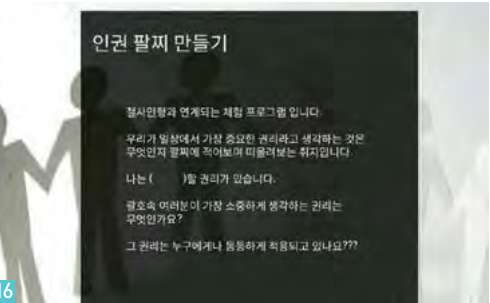
활동 사진



13 14



15 16



17 18

기관명	대한상공회의소 대외협력처(국제협력팀)	지원 유형	언제
승인명	교육기부(2016)	승인유형	교육기부기부 기준
승인(변제)일	승인	승인(변제)일	2016.10.29

- 12_ 마이크 임팩트의 지원을 받은 하나그리기 교육 프로그램
- 13_ 하나그리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철사인형 만들기
- 14_ 각기 다른 모양과 개성의 철사인형
- 15_ 하나그리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인권팔찌 만들기
- 16_ 인권팔찌도 만들고 응원 메시지 남기기
- 17_ 하나그리기 프로젝트를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정식 교육기부 센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모습

다살이행복



동아리(팀)명	다살이행복		
프로젝트 명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휴토피아'		
소속 학교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한우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임종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한예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차현경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김태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	김나운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	하보금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도 교수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다살이 행복’은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모였다. 우리 팀은 다문화·비다문화가정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고자 ‘휴토피아(Human+Utopia)’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아동이 함께 마을 활동을 진행하여 마을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키우고, 서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다문화는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부정적, 차별적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세부 활동 내용 및 성과

1. 프로젝트 사전 준비

1) 마을 조직화 교육 (5/28)

휴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팀의 권성민 강사를 초청하여 마을조직화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 특강을 통해 지역조직화 활동에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강을 통해 다문화와 지역조직화,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얻었다.

2) 다문화 사전 인식 조사 (6/9)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다문화 인식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은 것과, 다문화가정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처럼 실제로 인식 조사를 하면서 현재 성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과, 다문화 차별현황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향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리고자하는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3) 관악구청 다문화가족박람회 탐방 (6/18)

휴토피아 다문화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다문화축제의 운영방법 배우고자 관악구청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박람회를 다녀왔다. 부스 운영으로는 전통의상 체험, 베트남 전통모자인 눈 만들기, 러시아의 인형인 마트로시카 만들기, 각 나라의 전통음식 판매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각 나라의 전통 춤, 노래 자랑대회, 다문화가정의 어머님들의 라디오 진행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박람회 탐방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직접 시행할 ‘다문화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2. 다문화마을 만들기

예향꿈터로부터 다문화마을 만들기 활동 참여 아동을 모집하였다. 휴토피아 프로젝트 참여 아동은 중국, 베트남 등의 출신의 다문화아동 4명과 비다문화아동 3명, 총 7명으로 약 두 달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다문화 공동체의식 함양 (7/4)

첫째 주, 프로젝트 참여 아동과 다살이행복 팀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라는 다문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문화 블루마블 게임했다. 게임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출신 국가와 한국 이외에도 세계에는 다양한 국가와 그 문화가 존재함을 알려 주었다. 또한 게임 형식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 다문화아동과 비다문화아동이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2) 마을 탐방 및 마을 욕구 조사 (7/11~7/25)

3주 동안은 본격적으로 다문화아동의 마을인 인천 남구 마을을 탐방하고 욕구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주는 초등학교, 시장 등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의 좋은 점과 고쳤으면 하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셋째 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해보았다. 넷째 주에는 학익 시장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 주변의 쓰레기 정화 활동을 시행하였다.

3) 옆 마을 탐방 (8/1)

다섯째 주에는 옆 마을 배다리 마을과 동화마을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의 전통과 문화 보존을 위해 주민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있는 배다리마을과 마을 관광으로 유명한 동화마을 탐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친밀감 향상하여 서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지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비다문화아동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셋째, 마을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마을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다.

3. 다문화 인식개선

1)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 (8/8~9/2)

휴토피아 참여 아동들과 함께 인천재능어린이집의 아이들 약 30명에게 인형극을 시연하였다. 다양한 나라의 정통의상을 입은 인형을 준비하고, 다문화아동들과 함께 인형극 대사를 쓰고, 2주 동안 연습하였다. 이후 다문화아동들이 직접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각 나라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그에 따른 장점이 있으므로, 국가와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이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 것을 강조하며 인형극을 마무리하였다.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세계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고, 또한 어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문화인식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한국 이외에 타 국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이 직접 인형극을 시연함으로써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인형극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예향꿈터 아동들 또한 세계문화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2)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9/8)

이전에 조사하였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인천대학교 복지회관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다문화 가정 차별현황과 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피켓을 제작하였다. 캠페인에서는 피켓을 통해 캠페인 부스를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자녀 학교생활 차별실태를 알려주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설명한 내용에서 퀴즈를 내고 사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천대학생들에게 현재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차별철폐를 위해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약 180명의 학생들에게 다문화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고,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난 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학생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4. 다문화축제 (9/24)

남구다문화가정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가을바자회 ‘세상의 별의별 놀이터’의 부스에서 다문화축제를 열었다. 이 때 남구의 주민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축제를 기획하였다. 아동들이 바자회에 가면 주로 판매

위주라서 심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전에 방문했던 관악구청 다문화가족박람회의 경험을 참고하여 아이들을 위한 놀이 축제를 기획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로 구성하여, 베트남 모자 ‘논’ 꾸미고 만들기, 플레이콘으로 세계 국기 모자이크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다살이행복팀의 다문화축제 부스는 바자회에 방문한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베트남 모자를 만들고, 세계의 국기 모자이크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타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를 형성하였다. 또한 실제로 많은 비다문화, 다문화가정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와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릴 때, 부모님들은 기다리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다문화, 비다문화가정에 상관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축제 부스 운영으로 인천 남구 지역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다살이행복팀과 유네스코발룬티어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

어려웠던 점 및 소감

대학생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직접 실행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유네스코 발룬티어를 통해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살이행복 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유네스코 발룬티어를 통해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접 실행하기 위해 장소 및 기관 섭외, 준비물 준비,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 시간구성 등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 휴토피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같이 활동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모집하고, 다문화 축제를 하기 위한 공간을 섭외하는 것이었다. 또한 팀이 예상하지 못한 몇 가지

변수가 발생하였다. 마을주민 동의의 문제로 예정했던 벽화 그리기를 시행하지 못했고, 후토피아 참여 아동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자 했던 다문화축제에 학원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

약 5개월 동안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관 섭외와 돌발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이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 다살이행복 팀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었다.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술을 습득하고 높이고, 기관과 접촉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가 다문화·비다문화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동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다. 캠페인과 다문화 축제를 통해서 ‘다문화는 틀림이 아닌 다름’라는 의견과 ‘너희는 소중한데’라는 의견과 함께 다문화인식 개선 효과를 느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번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은 올해로 마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우리 팀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활동 사진



- 1_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조사 진행
- 2_ 마을 만들기 현장 답사: 배다리마을(성공사례)과 이화벽화마을(실패사례)
- 3_ 예향꿈터지역아동센터와 프로그램 진행: 5회기 동화마을 탐방
- 4_ 예향꿈터지역아동센터와 프로그램 진행: 7회기 다문화인식개선 인형극 시연
- 5_ 6월에 진행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6_ 인천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마을대잔치 실시

동(同)아시아



동아리(팀)명	동(同)아시아		
프로젝트 명	동(同)아시아? 통(通)아시아!		
소속 학교	강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합동아리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륜영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2	최남수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3	김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4	이풀잎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5	김태우	비학생	
6	김민기	비학생	
7	김진성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8	조수민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9	오강희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10	이인환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11	김민수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12	Qi Yuz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지도 교수	김남훈	강원대학교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활동 이야기

배경

근래 들어서 학교에 아시아권 유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생들은 점점 친숙하게 대해야 할 유학생들을 여전히 공공연히 배제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의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이미지마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예상되어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목적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인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나눔과 돌봄의 대학문화를 형성하며 꼭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가 행동했던 작고 사소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대상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내의 외국인 유학생들 및 학생들

주요 내용

학교 내의 강의실 또는 강당을 대여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상영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인권이라는 주제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 관람을 끝내고 이어지는 간단한 토론으로 학생들이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좀 더 전문성 있는 강연을 듣고자, 자문위원으로 계신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홍경주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외의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활동이 꼭 남들 돕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돌아 볼 계기를 만들어 주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키는 체계적인 활동임을 알리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캠퍼스 내 학생들에게 홍보물과 파일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하였다.

멘토링 프로젝트로는 강원대학교의 ‘버디 버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교류원 활동에 참여하였다. 추가적으로, 참가 인원이 많았던 강원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하여 문화교류회를 진행하였다.

달성 효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화와 강연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 유학생들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들, 은근히 배제시키던 행동들에 대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멘토링을 통하여 타지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덜어 주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통해 나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 혼자선호하는 대학분위기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심어주었다.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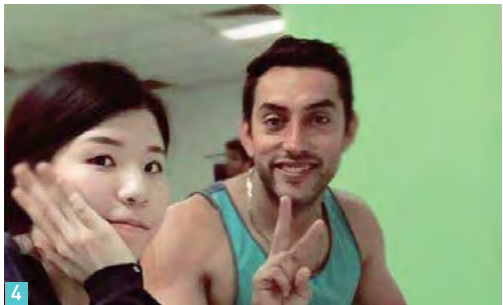
1



2



3



4



5



6

- 1_ 문화교류회
- 2_ 자문위원 초청 강연
- 3_ 홍보물 배포
- 4_ 강원대 유학생 멘토링
- 5_ 영화 상영회
- 6_ 과기대 유학생 멘토링

리.마.베.



동아리(팀)명	리.마.베.		
프로젝트 명	우리도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소속 학교	연합동아리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은성	연세대학교	정보통계학과
2	배수빈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3	이도희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4	김대성	국민대학교	신소재
5	이나겸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6	이은빈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부
지도 교수	안재준	연세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활동 이야기

우리는 여러 학교가 모인 프로젝트 팀으로서 미혼모와 리틀맘의 인식개선 및 처우 환경 개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초기에 다양한 학교에서 다른 전공과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웠다. 팀 회의도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 전 인원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기나긴 회의 끝에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신촌에서 진행된 '대국민 설문 조사 및 응원 메시지 캠페인'이었다.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직접 홍보용 판넬을 제작하고 먼저 다가가 설문조사와 응원 메시지를 부탁하며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먼저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용기가 생겨 전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결과는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 전에 예측했던 방향과 많이 비슷했다.

미혼모와 리틀맘에 대해서 정확한 차이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게 없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힘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들의 직접적인 환경 개선보다는 인식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체험'이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리주기 팔찌를 직접 만들어보며 생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에게는 현재 미혼모의 실태와 그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단한 홍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힘든 점에 대해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셨다. 우리 또래의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포럼을 진행하였다. 각 학교별로 1회씩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관 문제와 여러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회만 진행하였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그러나 5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해 주셔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간단한 팀 소개와 더불어 미혼모, 리틀맘들의 현 실태에 대한 조명,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거나 우리의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반영에는 힘이 들지만 이 시대에 젊은 대학생들이 미혼모 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미혼모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하였으며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에 대해 걱정하고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작게나마 미혼모들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

여러 단체들과 접촉한 결과 ‘춘천 마리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관이며,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미혼모들이 계셨다. 현재 아이를 임신 중인 분도 계셨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 중 17살의 미처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검정고시를 바로 옆에서 가르쳐주고 도와준 결과 검정고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아쉽게도 사적인 이야기나 교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속사정에 대해서는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으며 어린 나이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격과 준비가 충분한 친구였다. 합격 이후 사적인 연락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연락은 못 하였지만 소식에 대해서는 간간히 듣고 있다.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마음 속 깊이 응원하고 있다. 검정고시 준비와 더불어서 보호시설에 함께 계신 모든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전문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의 모습이였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프로젝트였던 ‘기업 연계를 통한 생필품 나눔’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무산되었다. 여러 군데의 기업에 메일을 보내보았지만 우리 팀의 규모가 작다보니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우리 팀만의 특별한 이야기 거리가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며 늘 고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 또한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활동 소감

김은성 봉사활동이 늘 그렇듯 우리가 투자하는 아주 작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혜자분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과 수혜자분들을 위하는 봉사활동이지만 나에게도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활동이다. 미혼모들과 리틀맘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조금이나마 탈피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우리 팀원들의 염원이 수혜자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길 기도하며 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한다.

배수빈 유네스코 볼런티어라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결과뿐만이 아닌 우리가 직접 기획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얻어 가는 것이 많았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머리 맞대어 아이디어 짜내며 스트레스도 받는 모든 것이 쉽게

접하기가 힘든 귀하고 감사한 경험들이었다. 특히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인 만큼 보람도 컸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지만 뜻대로 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음이 가장 아쉽게 느껴진다.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리틀맘들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이도희 막연하게 시작했던 긴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막상 ‘어느 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나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만들었다. 여러 대외 활동들과 봉사 활동을 진행해보았지만 나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달성해 본 기억이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한 걸음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시작은 내가 미혼모들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는 큰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누군가를 돕고 생각한다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뜻 깊은 시간 이었다.

김대성 유네스코 대외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사회에서 미혼모들과 리틀맘들이 받는 시선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팀원들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다 같이 봉사를 하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해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마치 나의 일처럼 기뻐다. 마음처럼 우리들의 목표와 뜻을 실현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내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활동하는데 자부심을 느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나겸 유네스코 대외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사회에서 미혼모들과 리틀맘들이 받는 시선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러 음에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멤버들이 소집되었을 때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문화재 보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만장일치가 나왔던 주제가 미혼모였다. 미혼모는 생각보다 흔하다. 다만 수면 밑에 숨어 있을 뿐이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인종과, 종교 그리고 장애와 동성애가 그렇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여전히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활동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신촌에서 직접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분은 50대의 남성분이다. 그 분은 전형적으로 리틀맘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고를 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 밖의 리틀맘과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또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관련 교육 안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다. 여기서 미혼모와 리틀맘들이 정말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9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은 미미하지만 이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변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미혼모와 리틀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은빈 리틀 마미와 베이비라는 팀명으로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미혼모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리주기 팔찌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미혼모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막상 미혼모 인식개선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도 그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다 마리아의 집에서 미혼모를 상대로 레크레이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 있는 미혼모들은 10대부터 3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해 사회적 활동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위의 불편한 시선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려는 엄마의 마음을 느껴 감동을 받았다. 미혼모 가정을 더 이상 사회 뒤로 숨길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堂堂히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미혼모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대국민 인식조사용 판넬 제작
- 2_ 대국민 인식조사 시작 전
- 3_ 대국민 인식조사 마무리
- 4_ 생리주기팔찌 플리마켓 회의
- 5,6_ 플리마켓 진행

활동 사진

교육일지 2016

일수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지명
1	7/13	수학	12:00	빙점과 부피 계산	/
2	7/14	수학	11:00 - 12:00	이차방정식 인성해, 전개	/
3	7/26	수학	10:30 - 12:00 13:30 - 15:00	수학, 사회, 과학 기술융합 교재	/
4	7/18	수학	10:30 - 12:00 13:30 - 15:00	선형 방정식 풀이, 영어기출, 영어	/
5	7/20	수학	10:30 - 12:00 13:30 - 15:00	중성염과 인성분해	/
6	7/2	수학	11:30 - 13:00	16년도 기출문제 해답들이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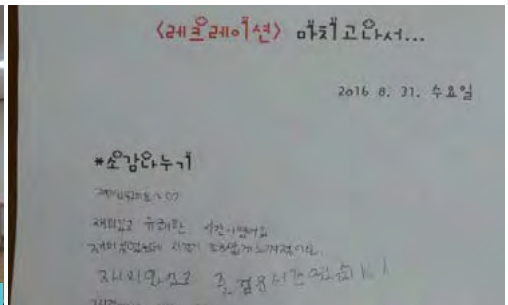
7



8



9



11



12

- 7_ 중등 검정고시 교육봉사 일지
- 8_ 레크레이션 진행 전
- 9_ 레크레이션 진행 중
- 10_ 레크레이션 후기
- 11_ 대학생 대상 포럼진행
- 12_ 대학생 대상 포럼 진행 후

美생물



동아리(팀)명	美생물		
프로젝트 명	미생물 인식개선 프로젝트		
소속 학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홍현희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생명공학과
2	최윤선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생명공학과
3	김영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의생명화학과
4	차주은	비학생	해당 없음
지도 교수	김종보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생명공학과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미생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뛰어난 생명공학적 소재인 미생물의 중요성 알리는 것, 그리고 미생물 상품, 미생물 퀴즈, 미생물 화장품 만들기, 미생물 학습만화를 통해 미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미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부 내용

1. 미생물 캐릭터 제작

저희 활동의 핵심이 되는 활동으로 미생물을 귀엽게 캐릭터화 시켜 사람들에게 자칫 교육적으로 느껴져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미생물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각 캐릭터는 피부, 구강, 장, 대장으로 인간의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주제로 제작했습니다.

2. 미생물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만들고 프리마켓에서 판매

프리마켓은 처음 도전하는 부분이라 어떤 물품을 팔아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용제품, 과학용 장난감, 악세서리 등을 만들기로 하여 EM(유용미생물)비누, 시온스티커를 이용한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컵 만들기 세트, 미생물 캐릭터 핸드폰 걸이 만들기 키트, 미생물 캐릭터 거울 버튼 등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장소, 홍보 등의 문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3. 미생물 인식개선 캠페인(인천)

이 인식개선 캠페인은 인천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인천의 송현근린공원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더운 날씨였기에 아이스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따로 제작한 판넬을 보며 미생물 퀴즈를 맞추면 미생물 캐릭터 상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참여 후기를 후기 판넬에 스티커로 붙이는 활동으로 마무리 지어 다음에 진행할 캠페인에서 참고할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미생물 알리기 학교 이벤트

미생물의 인식개선 및 다양한 역할에 관한 퀴즈를 어린 학생들에게 맞춘 SNS(카카오톡)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5.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한 EM스킨, 탈취제 만들기 교실(여주, 인천)

보고 듣는 것보다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기 부스를 열었습니다. EM을 이용한 EM녹차스킨, EM탈취제 만들기를 메인 활동으로 잡았고 간간히 EM의 역할과 간단한 미생물의 정의 및 특징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6. 미생물 캐릭터를 이용한 어린이 만화(학습만화) 만들어 어린이집에 배부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미생물 캐릭터를 이용한 학습용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각 미생물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자신의 역할과 몸에서의 미생물 밸런스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미생물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7. 블로그 및 페이스북 활동

페이스북은 단순히 홍보용, 이벤트 진행용으로 이용했다면 블로그는 지금까지의

활동내용 정리,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미생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성과

미생물 캐릭터에 대한 반응이 좋아 미생물 캐릭터가 들어간 스티커와 팜플렛(스티커북)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었다. 프리마켓의 경우는 당시 장소와 날씨의 문제로 실패하였으나 팜플렛 배부는 완료하였다. 학교 이벤트 또한 당일 반응은 좋았으나 직접 부스를 열어 진행한 것이 아니라 SNS응모하기로 하여서 참여가 없었다.

미생물 인식개선 캠페인에서 더운 날 아이스티와 상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캠페인의 참여율을 높여 미생물 퀴즈 풀기로 인한 지식전달과 미생물의 한정된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성공하였다.

EM스킨&탈취제 만들기는 200여개의 제품을 만들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 미생물인 EM을 알리고 미생물의 이로운 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린이 만화는 사정 상 배부는 10월 달에 진행하였으며 4세 아이들 20명에게 배부하였다.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에 배부하였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이들의 반응은 직접 보지 못했다.

어려웠던 점

팀원 단합(활동 전 나간 팀원들, 팀원 보충, 팀원 불화, 의사소통, 인력난), 계속해서 바뀌는 계획, 제작비 문제, 장소 컨택의 어려움, 홍보의 어려움, 활동장소에 따른

대여 문제, 경험자가 없어 발생한 여러 가지 실수와 그에 대한 수습 등 너무 많아 짧게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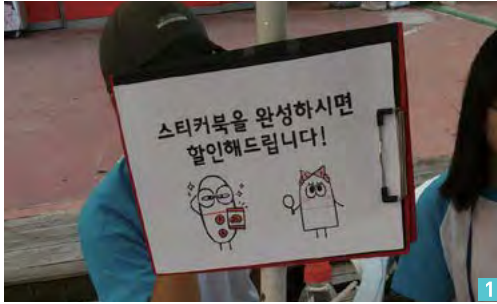
활동 소감

활동하면서 생길 변수들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참가했기에 힘들고 막막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직접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활에서는 겪기 힘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운이 좋아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혹은 혼자 감당할만한 조별과제만을 만나왔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의 양과 종류(인원이 많이 필요한 류의 일)로 인해 팀원과의 소통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팀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겪고 그를 해결함으로써 팀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경험이 부족한 나머지 사회에 나갔을 때를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팀 내에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향상시켜 자기계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껏 운용한 적 없는 백만원 단위의 돈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예상치 못한 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고민하고 행동하였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경험자가 없다보니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겪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행하려는데 있어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고, 전에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일들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학습 만화 만들기 소감 - 먼저 어린이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 결과 만화식으로 진행하며 각 캐릭터들이 위험에 처하면 구할 수 있게 활동지도 따로 만들어, 미로 찾기, 스티커 붙이기, 색칠공부, 암호풀기 등으로 구성된 학습만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로 디자인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어서 직접 손그림으로 그리고 스캔 해서 포토샵으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 학습만화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고 난 후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 뿌듯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사진



1, 2



3



4

- 1,2_ 충주 플리마켓
- 3_ 미생물 상품
- 4_ 인천 미생물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사진



- 5_ 미생물 인식개선 캠페인 판넬
- 6_ 여주 만들기 행사
- 7_ 월미도 만들기 행사
- 8_ 미생물 학습만화
- 9_ 학교 이벤트

MINGlish



동아리(팀)명	MINGlish		
프로젝트 명	새로운 배움터		
소속 학교	국민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장세희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2	김효주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3	이여빈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4	이승경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5	신현우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6	김원영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7	김유빈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8	구수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9	이수민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10	송은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지도 교수	김효영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활동 이야기

저희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MINGLISH]는 “섞이다”라는 뜻의 “mingle”과 “English”를 합쳐 “영어를 통해 한데 모여 어우러지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영미어문,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직과정 중인 대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 탈북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목표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 탈북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을 여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MINGLISH]는 평소 교육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부 학생들이 지도교수님을 통해 북한 탈북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탈북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동아리를 만들어 영어 멘토가 되어주는 [새터]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새터]라는 프로젝트 명을 지은 이유는 남한이라는 낯설고도 새로운 환경에서의 배움터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써, 새로운 배움터의 줄임말입니다. 저희는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저희만의 힘으로는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eGovHanaMain.do>)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탈북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어울려 따뜻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남북한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착한(着韓)자립을 비전으로 탈북민의 정착지원 활동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탈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시기에서 조금 뒤늦게 시작한 것이어서 처음엔 프로젝트의 출발부터 위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담당 팀장님의 배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총 10명의 탈북 학생들을 배정받아 교육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두 가지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MINGLISH의 첫 번째 활동은 탈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1:1 영어 멘토링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해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주 1회 1-2시간 정도로 꾸준히 6개월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이러한 1:1멘토링은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멘토와 멘티간에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멘티란 영어선생님이자 학생들이 편하게 대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언니 또는 오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MINGLISH의 두 번째 활동은 영어동화책 만들기 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와는 다르게, 스스로 배운 영어를 활용하여 동화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각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동화책에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은 배운 단어와 문법들을 응용해나가면서,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영어만 배우다가 가끔씩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학생과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멘티들이 영어 동화책을 만들 때 가장 즐겁게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졌던 활동이기에 개인 활동이 대부분인 저희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MINGLISH의 세 번째 활동은 영어를 활용한 특별활동입니다. 매 주 영어수업과 동화책 만들기를 하며 친밀감을 쌓아가다가 방학을 맞이하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가양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에서는 영어요리교실을 열어 학생들이 음식재료와 요리법을 영어로 배우고, 간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들며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수업하였는데 멘티와 멘토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들도 아주 맛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무실 선생님들께도 나누어 드렸는데 좋은 평을 받아서 기쁩니다. 은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학생이 좋아하는 축구 그리고 악기연주법을 영어를 통해 배움으로써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생활 속의 영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추가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어서 조금 힘들어 할 때도 있었는데 이러한 특별 활동을 곁들여서 함으로써 아이들도 저희 멘티들도 즐겁고 다시 레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접한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를 참가하기 위해 냈던 작은 아이디어로 난생 처음 탈북 학생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영어 수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만난 학생들은 모두 순수하고 친진난만한 보통의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약간 마음을 여는 데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친해진 후에는 굉장히 살갑게 다가와 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얻은 것이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단순히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저희의 투박하고 엉성한 계획서를 보고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봉사를 하겠다고 연락해서 찾아갔던 어린 대학생들에게 취지를 보아 기회를 주셨던 남북하나재단 정수화 팀장님께도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탈북학생 담당 선생님들과 저희의 멘토가 되어준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배려와 엄청난 운이 저희를 찾아와 인생에서 두 번은 겪기 힘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번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찾아가느라 힘들었던 저희 팀원들도 모두 수고했고 이러한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면 꼭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활동 소감

팀장 장세희

현재 재학중인 국민대학교로 편입을 한 후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대외활동과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대외활동을 알아보던 차에 눈에 뜨인 것이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라는 대외활동 이었습니다. 학기 초라 친한 동기들이 몇 없었기에 이참에 친구도 만들고 봉사도 하자 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신청서를 넣었고 그것이 좋은 만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영문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어서 영어를 활용할 방안을 위주로 찾다가 탈북 학생에게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배려가 저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저희 상황을 고려하여 탈북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소개해주신 남북 하나재단 팀장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저희는 감히 시작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로 배정 된 후 국민대와 먼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로 봉사를 하러 오는 저희를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각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배려 덕에 저희는 정말 교육 봉사라는 취지를 살려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탈북 학생들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문과 설렘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걱정과는 달리 그동안 만나봤던 초등학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밝고 착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매 주 봉사를 하러 1-2시간의 거리를 가는 것이 때로는 벅차기도 했지만 막상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을 시작하면 반갑고 즐거워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7개월간의 만남이 훌쩍 지나간 것에 아쉬움이 큼니다. 제가 맡은 학생이 저를 통해 무언가 남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좋은 만남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제 미래를 위한 좋은 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부팀장 김효주 지난 5월 31일에 제 멘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제 멘티는 조금 소극적이었고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보였던 학생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당시에 교육을 받긴 하였으나, 비교적 부족하고 풍족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해오던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날 당시에 제 멘티는 수학, 과학 과목은 비교적 수월하게 학교수준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영어에는 흥미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이기에 급격한 실력향상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학생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먼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제 멘티가 재미있어 할 수 있도록 알파벳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었습니다. 제 멘티는 곧잘 따라왔고, 금세 알파벳을 쓰는 법과 알파벳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배워갔습니다. 낯선 영어기에 어려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멘티는 수업을 잘 따라와 주었고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기소개 및 날씨 표현, 간단한 편지까지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 멘티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특히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제 멘티가 지쳐있거나 놀고 싶다고 할 때에는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재미있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멘토링 시작일을 기점으로 제 멘티는 점점 성격이 밝아졌고, 매우 활기찬 아이가 되었습니다. 5개월간의 멘토링을 통해 제 멘티 학생과 정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어 학교에서 거리가 꽤나 먼 학생의 학교까지 오가며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뿌듯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에 자칫 그 학생은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테고, 어린 나이에 낮은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는 제 멘티를 볼 때 마다 참 기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자발적이었다기 보다는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느낀 5개월이었습니다.

회계 이어반

우연치 않게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관해 알게 되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다. 동기들끼리 으샤으샤 해서 서로 끝없는 모임을 가진 끝에 활동 주제를 정하게 되어서 남북 하나 재단 측과 연락을 취한 뒤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어느새 활동을 마감하는 10월이 오게 되니 우선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전공하는 것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고 이렇게 보람차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줄 몰랐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초등학생을 가르쳐 보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어떻게 해야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나와 소통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와 회를 거듭하며 만나면서,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고, 그저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어느새 그 아이와 진실로 서로 아껴주고 있었고, 소통하고 있었다. 봉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한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어에 흥미도 붙이도록 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단지, 아이를 만나려면 거의 2시간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했기에 조금 힘든 면도 있었지만, 그런 노고를 다 잊어버릴 만큼 아이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기에 너무 좋았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6개월을 보낸 것 같다. 이번 경험은 새터민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으며, ‘새터민’이라 들었을 때는 조금은 나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지만 결국 한 민족이며, 우리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도 이런 교육봉사를 꼭 다시 하고 싶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게 해준 내 대학 동기들과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너무 감사하다.

팀원 구수현

유네스코 대외활동을 통해 탈북학생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일은 여태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유네스코 활동을 시작하기 전, 탈북민이란 단어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애뜻하면서도 와 닿지 않는 말이었다. 북한의 학생들이 어떤 실상에 놓여있고, 어떠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지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도교수님을 통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되었고, 6학년 두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던 나였지만, 처음 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 북한 학생들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학생들도 낯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 또래만큼의 실력을 가진 학생임에도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고,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기보다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틀에 짜여진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을 듣고 영어로 대답해주는 식의 수업방식을 택하였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었는지 대답도 안 해주고,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만 물어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를 나에게 터놓기 시작했다. 가족행사 일, 학교선생님께 꾸중들은 얘기, 좋아하는 남학생 얘기 그리고 학급에서 벌어지는 삼각관계 러브스토리 등 마치 동네

언니처럼 날 편하게 대해주는 게 느껴졌다. 그 덕에 숙제를 안 해오는 일도 잦았지만, 그보다 조금은 밝아지고 활기차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뿌듯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라 그런지 동화책 만들기에는 영 흥미를 못 붙였었지만, 스스로 어렵다고만 느꼈던 영어를 이용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고 나니 뿌듯했는지 색칠도 예쁘게 해서는 부모님께 자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은 갖게 된 것 같아 내심 미소가 지어졌다. 처음엔 북한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달라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무언가 특별한 교육방법이나 소통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3-4개월 동안 내가 한 것 이라곤 그냥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듯, 학생 과외를 하듯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영어 멘토링을 제공해준 것 뿐 이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 속에 탈북민에 대해 작지만 강력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과 그 편견이 '하나'라는 말을 낯설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편견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지만 이런 생각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MINGLISH의 새터(새로운 배움터)처럼 북한 아이들과 소박하지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하나'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어색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팀원 김원영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엔 아무래도 많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혹여 내 언행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이질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봉사를 시작하였다.

점차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아이는 여느 장난꾸러기 초등학교생들과 같이 나와 친밀감을 쌓게 되었고, 단지 영어 교육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 거리낌 없이 소통하게 되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좀 더 친동생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아이가 영어 수학에 임하는 자세는 또래들보다 진지하였고, 매 주마다 늘어나는 아이의 영어 실력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를 깨닫게 해주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아이의 어머니께서 학교에 방문하셨는데 그 때 “아이가 월요일만 기다려요!” 하셨던 순간이다. 겉으로는 통명스럽고 조금은 틱틱대기도 하던 아이가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공부를 즐거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였다.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다니는 것은 솔직히 많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지만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헌신할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는 매번 수업이 끝나면 나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때마다 나눴던 북한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만 같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팀원 송은진

처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는 큰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자세히 프로젝트 가닥을 잡고 나니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해서 그 재단을 방문해 여러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자신이 탈북학생이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고 이미 상처 많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않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생들을 공부 위주로 가르치는 멘토링이 아니라 탈북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자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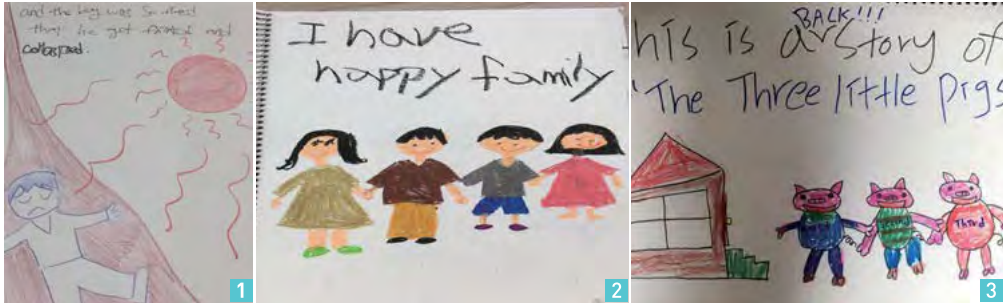
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친근한 언니, 누나이자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따라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교육봉사 활동이 끝난 지금, 나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다. ‘왜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되지만 이 프로젝트로 수상 여부보다는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탈북 아이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든 것 같아서 나에게서는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이고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로 공식적인 봉사 활동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남한에 적응하는데 길을 비춰줄 등불이 되어주고 싶고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탈북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이번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계기로 나의 공부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봉사를 할 계획을 세웠고 나를 변화시킬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팀원 **신현우**

유네스코 활동은 9월에 끝났지만 남북하나재단과의 약속으로 10월 까지 교육봉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10월 28일인 지금 내일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다. 유네스코라는 9월까지의 대외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답답했다. 아직 우리에게 1달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정말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진짜 막이 내리는 교육봉사, 솔직히 처음 활동을 하면서는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달고 봉사를 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유네스코라는 대외활동을 유지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멘티에게 이별을 고한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여태껏 쌓아왔던 관계를 내일 한 번에 무

너뜨린다는 것도 참 웃기다. 옛날부터 멘티-멘토 의 관계를 들어만 봤지 멘토라는 사람은 되게 거창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고 멘티의 삶을 이끌어줄 것만 같은 이미지가 나에게 박혀있었다. 내가 멘토라는 사람이 될지도 꿈에도 몰랐지만. 하지만 지금 멘토링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이끌어줄 능력도 없었고 다만 나의 멘티에게 최대한 맞추어 대화를 이어가고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멘토였다. 멘티 입장에서는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조심하였다. 그래서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졌을지도 모른다. 내가 제일 기뻐할 때는 멘토링을 몇 번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진미에게 번호를 물어봤었지만 당차게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어느새 진미가 용기를 내어서 인진 모르겠지만 나에게 휴대폰을 달라며 작은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번호를 입력하고 멘티이름♡♡♡♡♡라는 식으로 저장을 하였던 것이다. 나에게는 굉장히 놀라웠다. 남북하나재단과의 약속이 끝나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 멘토링이나 그 외 다른 멘토링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 사람과 관계를 쌓아 어려서부터 지금의 내 나이가 될 때까지 멘토링을 해보며 그 사람을 지켜보고 싶기도 하다.

활동 사진



1,2,3_ 학생이 직접 그린 동화책
 4,5_ 학생과의 1:1 영어 교육 멘토링
 6_ 특별활동:영어 요리 교실

보동보동



동아리(팀)명	보동보동		
프로젝트 명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자연순환)		
소속 학교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박소연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2	박수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3	김지오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4	김수영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5	이유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6	이지언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7	고은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8	김수빈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9	방하영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10	이정인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11	장지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12	김수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지도 교수	강수진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활동 이야기

저희 보동보동 팀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학술, 보건봉사에 열정이 가득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간호학을 배우면서 환경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 하에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동아리가 간호학과 학생으로 구성되었기에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선택한 적합한 주제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대구환경운동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환경 조성, 자원순환 인식 확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 고갈의 시대에 너무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포함한 자원이 버려지고 있으며, 쓰레기들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주도하는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자원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환경문제, 자원고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직접적인 건강 문제까지 끼치는 이 환경오염 문제를 지금부터는 그냥 얹이 아닌 실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쓰레기 배출에 초점을 두고 먼저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계획하였고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에 대해 무관심하기만 했던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환경개선과 환경운동의 동참의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계획한 바와 같이 가장 먼저 5월 19일 대구대학교 쓰레기통 실태 조사와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조사 배분을 통해 구체적인 쓰레기 배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총 10문항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지식 정도와 참여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대구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쓰레기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쓰레기통의 부족으로 인한 분리수거 비활성화가 원활한 분리수거의 주된 장애요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통과 캔/유리 이분 체계로만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재활용 가능한 종이 등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쉽게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10월에 개최했던 토론회 때 언급하여 교내 교무처장님, 환경개선 담당자분들과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5월 26일에서 27일까지 대학교 축제 기간에 WECUP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 인식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 배출되는 수많은 플라스틱류 중 페트병이나 재활용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투표용지 대신 사용하여 ‘이번 여름 바다를 갈지 계곡을 갈지’라는 주제로 참여를 유도하여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회용 컵 사용 홍보’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 심각성’ 포스터를 들고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6월 6일에는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했습니다. 담배꽂초나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던 불품없는 교내 화단을 가꾸고 맨드라미 종을 심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황량했던 땅을 이렇게 꽃 심기를 통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꽃을 심어 놓으니 더 이상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그 길목을 지나가는 주민분들과 학생들은 활짝 핀 꽃들을 구경하며 즐거워하여서 저희 또한 뿌듯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6월 14일에는 대구대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16년 그린캠퍼스 사업’에 선정되어 지도교수님으신 강수진 교수님과 총장님을 비롯하여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이 모여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임명받을 수 있었고 직접 학교의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7월은 주변 대구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보기로 구상하였습니다. 학교 옆 대명시장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얻어와 빨렛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특성상 수많은 기름이 사용되고 버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기름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의 식당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업체에 팔아서 처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 폐식용유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재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정에서 보다 쉽게 폐식용유를 재사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서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비누 만들기 할 때 필요한 저울을 포함한 용품들을 지원해주셨기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비누를 완성한 후에 본격적인 나눔 활동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다, 전단지를 드리는 것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환경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여 때마침 무더웠던 날씨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채를 재활용 방법이 적힌 문구를 넣어 제작하여 지식 나눔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직접 제작한 부채와 폐식용유로 만든 비누를 시장 상인 분들과 교수님, 학생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리지만 하는 것보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만들었음을 강조해서 환경운동 동참을 권함으로 어느 식당에서나 다량 배출되는 폐식용유가 우리 환경을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환경오염 개선에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확신합니다.

8월 29일에는 계획에는 없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환경 관련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더 알고자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부탁을 드려 저희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희망토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라는 도심 속 연밭과 습지가 고스란히 보호되어 있는 이곳에서 저희는 생태계의 순환과 논밭 곤충들을 보고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농장 주인 이신 이장님께서 저희에게 옥수수를 딸 수 있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판 옥수수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다, 늘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대구대학교 미화원 아주머니들께 드렸습니다.

9월에는 7월 비누 만들기를 진행하며 제작한 벌레 물린 곳에 바르는 약을 학우들에게 나눠주며 ‘깨끗한 캠퍼스를 위해 학생과 학교 간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총 3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의견을 주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재활용을 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외에도 학교에서 준 홍보용 텀블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흡연이 클린 캠퍼스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쓰레기통을 세분화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의견들이 학교에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여 마지막 활동인 토론회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새동변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리수거 퀴즈를 내고 상품도 나누어주고 wecup 활동을 통해 모은 재활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 사용해 스티커를 붙여 예쁜 콩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콩 심기를 함께 하며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이 거의 끝나가 느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이었던 10월 18일 토론회에서 학교 환경개선 담당자분과 환경운동연합회 분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관계자분께서 학교에 환경보존, 에너지 낭비 발생 감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회 관계자분께서도 초청으로 와주셔서 전남대학교 사례와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매년 참가해왔던 저희 동아리지만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볼런티어를 나서는 것은 첫 도전이었기에 걱정과 불안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We cup활동의 경우 참여도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저조했던 점이 아쉬웠으며 대구와 경산시를 넘어서 더 넓은 영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NS 홍보를 통해 영향권을 더 넓힐 수 있었으며 체계적인 계획과 게으름 없는 계획 수행으로 인해 계획했던 모든 활동들을 수월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기간이 하계 방학과 겹쳐 개인의 스케줄을 고려해 유네스코 활동을 진행하려다 보니 전원이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참여도를 높이려 각자가 노력하고 모든 활동을 소중히 신경 쓴 결과 완성된 활동 하나하나가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시민분들이 저희가 제작한 부채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세제가 아닌 친환경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활동이 종료되었음에도 저희 보동보동은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장차 더 활성화될 환경운동에 작으면서도 큰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하며 전교 학생들과 교직원분들과의 꾸준한 협의로 더 나은 교내 환경,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저희 팀원들은 ‘간호’를 전공으로 하나, 이 활동을 통해 ‘나 또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환경운동에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카페에서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 하나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이 또한 자원 순환의 방해이자 자원 낭비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매우 만족을 하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대구대학교 하계축제기간 위킵활동
- 2_ 위킵활동 방명록, 홍보문구들, 피켓
- 3_ 교내쓰레기 처리장 방문 - 쓰레기 분리 실태 파악
- 4_ 학교환경시설 관리자 면담 - 청소인력현황, 교내 쓰레기 배출 실태 조사
- 5_ 가드닝 활동 준비
- 6_ 가드닝 활동

활동 사진



7



8



9



10



11



12

7_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8_ 버물리 제작 - 통 세척

9_ 쓰레기 올바른 버리기 게임

10_ 화분만들기와 손씻기교육, 쓰레기 버리기 게임과 새동변 어린이집

11_ 매주 월요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보동보동 협의 회의

12_ 희망토 방문

활동 사진



13 14



15 16



17 18



- 13_ 대구대학교 미화원분들께 드릴 옥수수를 전달
- 14_ 희망토 방문
- 15_ 시장상인, 손님에게 폐식용유로 만든 빨래 비누 및 홍보부채 배포
- 16_ 희망토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교내(대명캠퍼스)미화원분께 전달
- 17_ 대구대학교 학생대상 홍보 및 클린캠퍼스 의견 수렴
- 18_ 대구대학교 - 관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한 토론회

보듬이



동아리(팀)명	보듬이		
프로젝트 명	영영 프로젝트		
소속 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윤은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강수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문다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김시온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김조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	박유정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	박성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	유채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도 교수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1. 다문화 아동·청소년들 인식개선을 통한 차별철폐에 앞장선다.
한국인 청소년들이 다문화 아동과 함께 어울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차별적인 편견을 해소한다.
2. 다문화의 인권과 함께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다.
다문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인 청소년들도 스스로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
3.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한다.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자세를 함양하며 세계화 시대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세부 내용

1. 5월 활동
활동 장소 섭외 및 홍보전략 수립(5월 19일, 5월 26일)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었던 워크숍 이후, 영영 프로젝트를 진행할 장소인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6월 3일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잡았다. 센터 방문 전에 대상자 모집을 위해 프로젝트 홍보 관련 세부 내용을 선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치를 기준으로 인근 학교 및 주민센터를 조사하여 홍보물과 공문을 보낼 목록을 만들었으며, 영영 프로젝트를 소개할 구체적인 계획서와 예산안을 정리하여 센터 측에 미리 발송하였다.

2. 6월 활동

1) 영상 촬영 재능기부자 모집 성공(6월 초)

영영 캠프 활동에서 영상 촬영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기부자 모집에 성공하여 7월 16일에 공식 미팅을 갖기로 하였다.

2)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의 사전 오리엔테이션(6월 3일)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협약 후, 센터에 활동 세부 내용과 예산안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영영 프로젝트 활동 계획에 대해 센터 측과 함께 의논하였고, 대상자 모집을 위해 사전에 조사한 학교 및 주민 센터에 홍보 포스터, 공문, 참가 신청서 총 세 가지 모집 계획에 대해 알려드렸다.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모집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의논한 후 실제 활동이 이루어질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3) 전체 계획 수정 및 회의(6월 14일, 6월 17일, 6월 24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센터 측과 많은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여러 가지 수정된 계획이 잡혔다. 우선, 아이들이 다문화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캠프를 위한 사전 준비 모임이었던 기존의 다이아(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아이들)활동을 캠프와 캠페인으로 합쳐 하나의 큰 활동으로 키워 아이들과의 친밀감 형성 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모집과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7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활동 시기가 늦춰진 만큼 회기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활동 회기 수를 기존 14회기에서 8회기로 변동되었다.

회의 때는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캠프 팀과 캠페인 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팀은 접근성, 안전, 예산을 고려한 캠프 장소에 대해 논의하였고, 캠페인 팀은 진행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3. 7월 활동

1) 영영 프로젝트 1회기 관련 회의(7월 16일)

7월 23일에 진행되는 1회기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1회기 진행자의 프로그램 시연을 한 뒤, 팀원, 센터 담당자와 함께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영영 캠프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이어서 영상 촬영 재능기부자와의 미팅을 가졌다. 어떤 영상을 촬영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영영캠프에서의 역할들을 나누고, 촬영 시 필요한 소품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영영 프로젝트 회의(7월 20일)

7월 20일 회의에서는 주로 캠프 세부 내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종 장소인 다락원 캠프장을 사전 예약하였으며, 캠프와 관련한 예산을 정리하였다.

3) 영영 프로젝트 1회기 - 안녕 다이아!(7월 23일)

영영 프로젝트 1회기를 7월 23일에 진행하였다.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이름표를 꾸미고, 매 회기 활동할 때마다 소감을 작성하고 활동사진을 붙이는 기록장인 '영영북'에 활동 선언서도 작성하였다. 이후 2부에서는 게임을 통하여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팀원, 센터 담당자와 함께 1회기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 영영 프로젝트 2회기 관련 회의(7월 27일)

2회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3회기에 진행되는 영영캠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캠프 발대식, 방 배치, 식사 메뉴 등 여러 세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5) 영영 프로젝트 2회기-다이아 활동1 영영 테이블&영상 멘토와의 만남(7월 30일)
영영 프로젝트 2회기를 7월 30일에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다양한 미래를 상상해보는 영영테이블 활동을 진행하고, 각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영상 멘토와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상 촬영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회기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팀원들은 2회기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캠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4. 8월 활동

1) 영영 프로젝트 3회기 관련 회의(8월 3일)

3회기 관련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세부 활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영영 프로젝트 3회기 - 영영캠프(8월 6일-7일)

영영 프로젝트 3회기를 8월 6일과 7일, 1박 2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과 함께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모여 캠프가 진행되는 다락원 캠프장으로 아동들을 인솔하였다. 8월 6일에는 영영캠프가 진행되는 영영나라로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국 심사를 거쳤으며, 영상 촬영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이후, 각 팀별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후, 문화 마블과 미니게임을 진행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취침을 하였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는 점심 식사 이후 영영나라 출국심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3) 영영 프로젝트 4회기 - 다이아 활동2: 보고 듣는 다문화 이야기(8월 13일)

영영 프로젝트 4회기를 8월 13일에 진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다문화 관련 영상인 영화 ‘주토피아’를 시청하고, 영화 감상평과 함께 다문화 존중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회기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한 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5회기인 문화 박람회에 대한 시연 및 4회기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며, 5회기 구성 회의를 진행하였다.

4) 영영 프로젝트 5회기 - 다이나 활동3 영영 문화박람회(8월 20일)

영영 프로젝트 5회기를 8월 20일에 진행하였다. 이 시간에는 오감각의 세계를 컨셉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 체험을 진행하였다. 문화 박람회는 미각의 방, 촉각의 방, 공감각의 방으로 총 3개의 방으로 나누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5) 영영 프로젝트 6회기 - 영영 캠페인 준비(8월 27일)

영영 프로젝트 6회기를 8월 27일에 진행하였다. 회기를 진행하기 전, 미리 팀원들은 모여서 6회기를 시연해본 뒤,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6회기에서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팀을 나누었으며, 각 팀별로 캠페인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영영북에 소감을 작성한 뒤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5. 9월 활동

1) 영영 프로젝트 7회기 - 영영 캠페인(9월 3일)

영영 프로젝트 7회기를 9월 3일에 진행하였다. 영영 캠페인은 영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에 대해 배우고 느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캠페인 활동은 의정부역 팀과 중앙역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하였다. 제작한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팀원들은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영영 프로젝트 8회기 - 또 만나, 다이나(9월 10일)

영영 프로젝트 마지막 회기인 8회기를 9월 10일에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영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참여 아이들이 작성했던 영영북에 팀원들이 소감 및 편지를 남겼으며, 지난 활동들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료식과

특별상을 참여 아동들에게 수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영영복을 작성하고, 영영 프로젝트 8회기의 활동을 종결하였다.

3) 전국 다문화 UCC 공모전 참가 (9월 21일)

영영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안양시 부흥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전국 다문화 UCC 공모전에 출품하는 회의를 9월 21일에 진행하였다. 영영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취지를 지역사회에도 확산시키고자 지역구 영상 공모제에 참가하게 되었고, 활동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학부모에게서 정보제공 동의를 얻고서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하며 영상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영영 프로젝트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성과

1.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참여 아동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인하여 다문화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화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존중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하여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며 다국적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

3. 교육 및 심리발달 향상 효과

직접 캠페인과 영상 제작을 진행함으로써 성취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을 높여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활동 소감 : 지난 4개월 간의 활동들을 회상하며

프로젝트 활동 초반에는 대상자 모집과 홍보과정에서 유독 어려움이 겪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대상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인근 각 학교사회복지사와도 만나며 도움을 받았다. 극적으로 모집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컨택된 초등학교 사회복지사님으로부터 학교와 거주지가 제각각인 아이들이 센터까지 오는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의 직접 인솔 요청을 추가로 요구 받았다. 팀원들과의 논의 끝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반영하여 팀원 전원이 프로젝트 기간 내내 담당 아이들을 1~2명씩 왕복 인솔하기로 하였다.

지독한 폭염으로 무더웠던 지난 여름방학 내내 아이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분명 팀원들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또한 매 회기마다 대본 작성 및 시연 과정을 꼼꼼히 거치는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무엇보다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육 콘텐츠 구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던 점에서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었다.

대상 아이들의 수준, 유네스코와의 연결고리와 교훈적인 의미 전달, 예산, 날씨 상황 등을 생각하다보니 때로는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되어 10시간 가까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때도 수두룩했다. 특히 가장 변수가 많았던 영영캠프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소 사전답사부터 아이들 간식 선정, 기획부터 제작, 시연까지의 모든 프로그램 준비과정, 영영캠프에서의 다문화 영상 촬영,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며 진행했고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폭염과 함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동반되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즐기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으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어설피고 서툴렀던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생각해주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고 정말 고마웠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만큼 이를 최대한 전달하고자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함께 한 팀원들의 정말 많은 피땀과 눈물 섞인 노력과 열정으로 일구어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13명의 아이들과 함께 영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영영 프로젝트에 긍정적으로 응하며 장소와 여러 협조를 많이 해준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들의 영상 촬영을 도와준 영상 멘토 봉사자, 그리고 불린티어 프로젝트라는 뜻 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유네스코위원회까지 영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예비 사회복지사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듬이 팀이 하고자 했던 것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주고 함께 해 주었던 많은 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 활동
- 2_ 여러 나라의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별 문화카드 제작 중인 모습
- 3_ 1회기 다 함께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 4_ 2회기 영상 멘토와 함께하는 영상퀴즈!
- 5_ 3회기 영영캠프에서 영상 소리 편집하는 활동
- 6_ 3회기 영영 캠프광고촬영 활동

활동 사진



- 7_ 영영캠프에서 문화마블을 통한 세계문화 체험 및 퀴즈활동
- 8_ 영영캠프에서 미니게임 진행 중인 모습
- 9_ 4회기 보고 듣는 다문화 이야기
- 10_ 4회기 영상시청 후, 소감문 작성 활동
- 11_ 5회기 문화박람회 '공감각의 방'에서 인간 고누 게임 활동
- 12_ 5회기 문화박람회 '미각의 방'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활동

활동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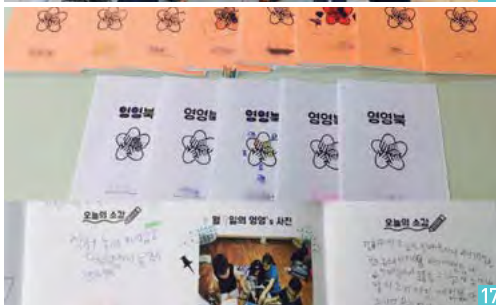
14



15



16



17



18

- 13_ 6회기 문화다양성 존중 캠페인을 위한 피켓 제작 활동
- 14_ 아이들이 함께 완성한 캠페인 피켓
- 15_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해 묻고 답하는 캠페인 활동
- 16_ 8회기 영영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
- 17_ 50일간 아이들이 작성해온 소감문과 보듬이의 코멘트
- 18_ 영영 프로젝트 수료식 기념 사진

소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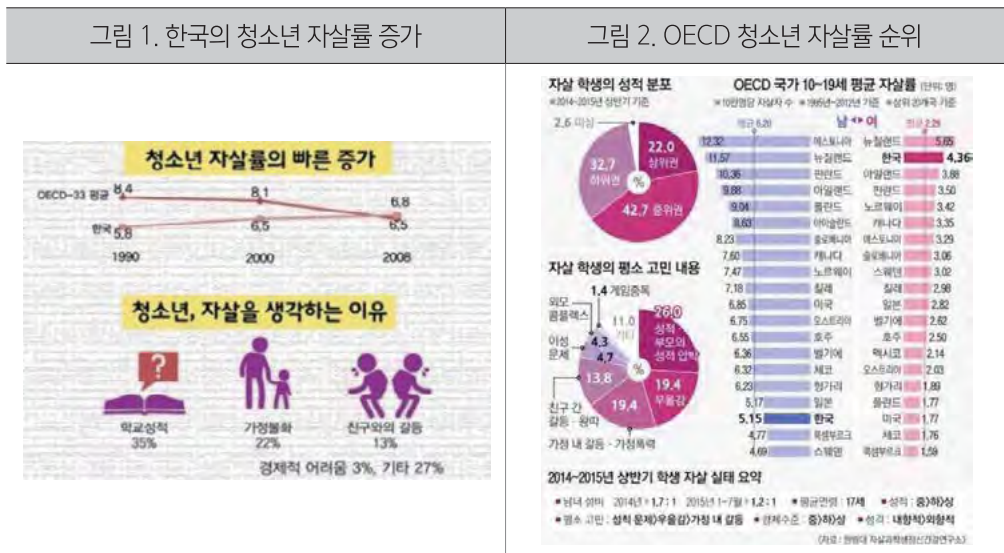
동아리(팀)명	소행성		
프로젝트 명	놀(NOL) 라잇 : Network Our Lives		
소속 학교	연합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예솔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	천지영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3	김소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	고세이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5	임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6	박재우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7	원혜령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8	정유진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
9	임수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지도 교수	한윤영	송실대학교	교육심리학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소행성팀이 기획한 놀(NOL) 라이트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중한 개념인 ‘놀 권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향락적·소비적 놀이문화에서 벗어나 대안적이고 협동중심적인 놀이문화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학업과 입시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놀이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잇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과 바쁜 삶에 지친 한국인에게 놀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지수 감소와 소통의 부재는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놀 권리의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을 위해 소행성은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놀 권리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캠페인, SNS홍보를 기획하였습니다. 비록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지만 제 4기 유네스코 볼런티어로 활동하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천천히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놀 권리를 되찾자는 외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존의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1. 청소년 놀이교육 프로그램 with 도봉교육복지센터

1) 프로그램 소개

소행성은 7~9월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도봉교육복지센터에서 10주간 진행된 이 활동은 청소년에게 놀 권리를 알리고 대안적인 놀이문화를 생산하는 장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연결해 준 학생들은 정서적, 경제적 지지기반이 약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일반적인 소비문화를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은 놀이교육을 통해 도봉친구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대안적 놀이를 함께 탐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봉구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자발적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인식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게 하는 한편 놀이를 함께 하는 타인도 인식하게 하여 소통·협력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주입식 교육이 아닌 즐거운 활동이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1~2주차 :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스브레이킹

1주차 프로그램	2주차 프로그램
소행성팀/놀 권리 소개	오프닝 게임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My way 자기소개	놀 권리 Jeopardy : 도봉오락관
눈싸움 속 친구 얼굴 그리기 양파링 옮기기 게임	캐치마인드 게임

1~2주차에는 놀 권리에 대한 교육을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3~4주차 : My Story, Our story

3주차 프로그램 : My story	4주차 프로그램 : Our story
Intro : 영화 “꾸뻏씨의 행복 여행”	지식채널 e : 둥글게 산다는 것
셀프 행복지수 측정하기	우리들의 동그란 모습: 소통과 공감
자신에 대한 8컷 카드뉴스 만들기	팀별 만다라 도안 만들기

3주차에는 자신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이야기하며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를 카드뉴스로 소개해보았습니다. 4주차에는 초점을 ‘나’에서 ‘우리’로 바꿔 서로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은 5주차의 만다라 소풍을 준비하고 서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4) 5주차 : 만다라 소풍

5주차 프로그램 : 만다라 소풍

보물찾기 : 미션수령을 위한 인트로 게임

북서울 꿈의 숲 탐방 : 사진 미션 수행과 만다라 재료찾기

휴식 : 간식 먹으며 수다떨기

집단 만다라 만들기

5주차에는 4주차에 만든 도안을 가지고 ‘북서울 꿈의 숲’으로 함께 소풍을 나갔습니다. 함께 걷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만다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놀이에는 반드시 인공적인 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과 같은 우리 주변사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 6~7주차 : 놀이터 만들기

6주차 프로그램	7주차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 놀이공간	프로그램 소개 : 과자집짓기 방법
내가 원하는 놀이공간 마인드맵	과자놀이터 만들기
놀이터 상자 콜라주	과자놀이터를 한 데 모아 게임진행

6주차에는 자신이 바라는 나만의 놀이터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상자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상자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7주차에는 과자를 건축자재로 하여 직접 입체적인 놀이터를 제작해보고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8~9주차 : GCED(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estival

8주차 프로그램	9주차 프로그램
세계의 전통놀이 소개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간단한 소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소개	세계전통놀이 체험
전통놀이 직접 체험해보기	놀이창작 & 소개 UCC 제작

8~9주차에는 세계 각국의 놀이 문화를 체험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증진하고 대안적인 놀이문화를 탐색하였습니다. 한국과 외국의 전통놀이를 2주에 걸쳐 소개해 다양한 국가의 놀이문화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놀이도구가 간단하다는 특징을 통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즐거울 수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7) 10주차 프로그램 : Goodbye 소행성

10주차 프로그램 : Goodbye 소행성
GCED Festival 영화제
상장수여식 & 익명게시판 & 굿바이 영상
아이들이 준비해 온 공연 및 게임

10주차에는 다과회 형식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놀 권리의 의미를 되새겼고, 멘토들이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이름붙인 상장을 수여하는 등 작별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멘토들 몰래 준비해 온 공연과 직접 만들어 온 게임을 늦게까지 진행하였기에 멘토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진 놀 권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놀 권리 회복 일지

1) 프로그램 소개

소행성은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청소년 ‘놀 권리’ 상실에 학부모님들이 일조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이 휴식시간에 가족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 권리 회복일지를 기획하였습니다. 일지는 30일 분량으로 하루에 한 개의 미션을 수행한 후 일지를 작성하면서 가족들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름부터 기획을 시작했고 9월말에 놀이교육을 함께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 결론

본래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학부모를 끌어들이기가 사회적 여건상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야 했습니다. 비록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한계를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 사회가 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놀 권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 놀이터 만들기 : 소행성 플랫폼

1) 프로그램 소개

청소년들이 큰 비용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목적으로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놀이터 공유 공간 ‘소행성 플랫폼’은 소통의 벽, 행복의 벽, 성장의 벽이라는 세 가지 컨셉으로 구성되었으며, 싱크대나 녹음부스, 게시판, 책장 등으로 컨셉에 맞게 배치하였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가구를 구매하고 공사현장에 가서 페인트칠을 하고 왔으며, 이 공간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결론

소행성 팀원들이 공사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 큰 공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 회의를 통해 마을 청소년, 대학생, 마을 어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구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4. 캠페인

1) 프로그램 소개

놀이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놀이를 통한 소통, 행복, 성장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 대치동 학원가 캠페인

대치동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자유시간은 주로 디지털 매체 사용으로 보내고 놀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불안해하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반포 한강시민공원 캠페인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놀아야 하는 반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힘든 이유는 인간관계, 외모, 학업 등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여행, 휴식, 행복 등이 있었습니다.

그림 5. 캠페인 결과(1)					
질문/시간	0~1	1~3	3~5	5~	총합
청소년얼마나 놀아야?	4개 (10.25%)	6개 (15.38%)	14개 (35.89%)	15개 (38.48%)	39개 (100%)
청소년 얼마나 공부해야?	3개 (8.3%)	12개 (33.3%)	9개 (25%)	12개 (33.4%)	36개 (100%)

그림 6. 캠페인 결과(2)		
답변/질문	___ 때 문에 힘들어!	___ 하고 싶어!
시민들이 대답한 내용	인간관계, 외모, 정서적 불안감, 경제적 불안, 이성교제, 가족, 학업 등	여행, 결혼, 휴식, 경제적 여유, 행복, 학업적 성취 등

(3) ‘커.플.링 하자!’ 캠페인

‘커.플.링 하자!’ 캠페인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커넥팅(Connecting), 플레이(Playing), 힐링(Healing) 세 개의 부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커넥팅 부스는 SNS 홍보 및 놀 권리 소통공간으로 이루어졌고, 플레이 부스는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힐링 부스는 드라이플라워와 엽서를 나눠주어 시민들이 쉬어가며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2) 결론

소행성은 인식조사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점과 주된 놀이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커.플.링 하자!’ 캠페인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추후 SNS를 통하여 일부 시민들로부터 놀 권리 활동에 재능기부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직은 놀 권리가 생소하지만 시민들은 놀이를 통한 소통을 염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면 놀 권리 회복에 큰 관심

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 홍보활동

1) 프로그램 소개

한정적인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온라인을 이용하여 SNS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1) N사의 블로그 운영을 통한 홍보(네이버 블로그 '소행성'운영



소행성 팀원들이 한 주씩 돌아가며 각자 놀 권리와 관련된 게시글을 연재한 '주간 놀권리'와 놀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한 '놀라잇 프로젝트 with 도봉구'가 있습니다. 소통창구를 통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공공기관 연락 및 홍보

메일을 통해 서울시 각 구별 교육센터 및 청소년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도봉교육복지센터와 함께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노원구의 공유공간에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 (3)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홍보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소행성의 놀라이트 프로젝트 및 놀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성과 및 어려웠던 점

놀라이트 프로젝트의 성과는 첫째, 도봉교육복지센터와 함께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적 놀이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소년에게 놀이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였던 점입니다. 가정, 학업 문제로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방과 후 놀이시간을 보냈고, 최종적으로 센터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길거리 캠페인과 활발한 SNS홍보 활동을 통해 생소했던 놀 권리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 점입니다. 저희는 총 3회에 걸친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놀 권리에 대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발한 SNS활동을 통해 놀 권리에 대한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고, 소행성의 활동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는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안적 놀이공간의 창출입니다.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임수진 선생님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노원구 월계동의 작은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소행성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놀이터 운영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주최한 2016 서울 마을회의에 직접 의제를 제출하여 내년에 추진되는 정책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마치며 아쉬웠던 점은 놀 권리 회복일지를 개발하였으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학부모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교육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지를 배포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놀 권리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끝까지 열심히 끌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1주차: 상황극을 통한 놀 권리 소개 장면2
- 2_ 2주차: 도봉오락관
- 3_ 3주차: 행복 지수 그래프 그리기
- 4_ 4주차: 만다라 도안 만들기 1
- 5_ 5주차: 집단 만다라 만들기
- 6_ 6주차: 놀이공간 마인드맵



7 8



9 10



11 12



- 7_ 7주차:과자 놀이터 만들기
- 8_ 8주차 한국 세계 전통놀이 체험
- 9_ 10주차:마지막 단체 사진
- 10_ 놀이터 공유공간 페인트칠 활동
- 11_ 대치동 학원가 캠페인 활동
- 12_ 반포 한강시민공원 캠페인 활동

활동 사진



13_ 서울시 주관 2016 서울마을회의의 참가(노원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와 함께)

14_ 노원구 대표 의제안 발표

15_ 매주 일요일 4~7시 회의

16_ 공유공간(소행성플랫폼)페인팅 완료

솔롱고스



동아리(팀)명	솔롱고스 (Solongos)		
프로젝트 명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오작교 프로젝트		
소속 학교	중앙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박지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2	양혜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3	이서영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4	이정화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지도 교수	박환영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솔롱고스의 오작교 프로젝트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사회문화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하는 민속학 전공자인 저희에게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화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보다는 여러 문화권의 다인종이 모여 사는 다인종 국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각 문화 간의 진정한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에는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매해 열리는 재한 몽골인들의 나담 축제를 가장 큰 문화교류의 장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담 축제가 취소되면서 다문화 정책 및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한몽골학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한몽골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및 교류 프로젝트’로 주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한몽골학교와 함께 하는 오작교 프로젝트는 총 6개의 세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네스코 볼런티어 팀 솔롱고스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광양고등학교 소속 유네스코 동아리 그리고 재한몽골학교 재학생 및 태권도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6개의 활동 중 5개는 현재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며 마지막 활동과 각 학교 연계 다문화 교육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6개의 활동을 시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한몽골학교 캠프

재한 몽골 학교의 연례행사인 몽골캠프에 참석하여 1박 2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친목을 형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와 몽골 문화의 융합’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두 문화의 접점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학생들이 두 문화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사전에 재한몽골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약 3시간가량의 수업시간을 할당받았습니다. 이후에 다문화와 관련한 논문 및 책읽기, 몽골학박사 교수님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몽골 캠프에서 ‘놀이’라는 테마로 학생들과 교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몽골의 대표 놀이인 샤가이와 우리나라의 공기를 결합한 샤가이 공기 및 다양한 다문화 민속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샤가이를 가지고 한국 민속 놀이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는지 큰 흥미와 높은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저희는 한국의 놀이에 대해서, 몽골 학교 학생들은 샤가이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며 친목을 형성할 수 있었고 더불어 여러 다른 문화의 융합의 긍정적인 측면, 다문화의 이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연계 다문화 교육

다문화가 아직 생소한 광양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다문화 이론 및 현황에 대해 공부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5회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기획, 실시하였습니다. 1차 수업에서는 <다문화의 다양한 이론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2차에서는 <타국가의 성공적인 다문화 사례와 진정한 한국인의 의미>에 대하여, 3차로는 <몽골 문화 및 재한몽골학교에 대한 사전 교육> 그리고 4차로는 <나담축제 후 후기 및 느낀점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12월에 모든 활동 마무리 짓는 마지막 5차수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업은 솔롱고스 팀원들이 전공수업에서 취득한 여러 전공지식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준비하였으며, 팀장 박지현과 팀원 이서영이 번갈아가며 수업을 지도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문화 현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다문화 현장을 체험하며 느낀점을 토의하며 다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다문화 인식을 지닌 세계시민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재한몽골학교 연계 다문화 교육 “태권도 동아리”

대다수가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몽골 학교 친구들에게는 앉아서 하는 수업식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활동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문화를 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태권도 동아리’를 구성하여 총 17명의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그리고 유단자 고등학생 친구와 방과 후 활동을 매주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품새와 태권도 자세를 배우고 동시에 태권도 속에 깃든 한국의 예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같이 이야기해보며 한국의 문화를 놀이를 통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몽골 학교에서 몽골식 교육만을 받는 친구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 혹은 한국인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와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태권도 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 학습을 진행하면서 보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양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형누나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통한 교류를 통해 몽골학생들이 더욱 성숙한 다문화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닌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재한 나담축제

몽골 캠프와 태권도 수업을 통해 몽골 학교 학생들과 많이 친해졌고 광양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문화 수업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몽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나담 축제에서 활동할) 부스 만들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담 축제라는 몽골의 대표적인 축제를 한국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 할 수 있다는 이점을 통해 문화에 대한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몽골의 대표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담 축제에서 활동할 부스의 테마는 바로 ‘송편 만들기’였습니다. 나담 축제 일주일 후가 추석이기도 하였고 옆 부스의 테마가 몽골의 전통음식인 허르헝 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고등학교 학생들은 두 부스 모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허르헝을 나눠주며 시식해보기도 하고, 몽골 학생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설명해주며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먹어보고, 이야기 해 보면서 ‘다문화’, ‘문화 교류’라는 거창한 수식을 넘어서서 서로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였으나, 직접 몽골 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몽골의 축제를 체험하는 시간은 저희와 한국학생, 그리고 몽골학생 모두에게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째, 전통 문화의 날

나담 축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를 몽골 학생, 한국 학생들과 함께 탐방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코스는 ‘통인시장-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 이었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를 소개해 준 만큼, 한국 학생들도 그에 보답하는 체험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도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몽골 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지현 학우(솔롱고스 팀장)가 가르치고 있는 태권도부 학생들과 광양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신청을 원했던 몽골 학교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통인시장에서 돈을 엽전으로 바꾸어 엽전으로 음식을 고르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후 경복궁으로 이동하여 여러 전(殿)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몽골학생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한국학생들이 경복궁에 대해 소개, 질문하고 함께 몽골의 게르(Ger)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가서 준비해온 활동지 풀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유물들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한국, 몽골 학생들 모두 신기한 과거 유물에 대해 큰 지적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주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전(前)에 활동했던 나담 축제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었고, 몽골 학교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후 활동 계획

최종 보고회 이후에 11월 18일 예정된 활동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날 진행 예정인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몽골과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 퍼스 투어'이고 다른 하나는 광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캠퍼스 투어의 취지는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활, 학과 등 평소 궁금했던 대학생의 삶에 대해서 묻고 답해줄 수 있는 편안한 정보획득의 시간을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몽골과 한국 고등학생들이 '나라'라는 구분 없이 같은 나이 대에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학교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고 교류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으로서, 몽골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몽골 학교 학생들 스스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인터뷰는 유네스코 세계시민학교에게 부여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롱고스 그리고 오작교 프로젝트의 의미

이번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은 저희 팀원들에게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각 학교 선생님들에게 저희 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한 몽골학교 교내 행사의 참여를 허락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몽골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한국인 대학생 집단이 재한 몽골학교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부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몇 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선생님들에게 저희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 많은 회의를 하고, 기획서를 수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몽골 학생들과 첫 만남이었던 몽골 캠프 때 저희의 태도나 준비해 간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었는지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도 특별한 점, 혹은 몽골인으로서의 기상 등을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를 한국 선생님, 한국 언니, 누나가 아닌 그냥 ‘언니, 누나’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희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특별함’과 ‘선 굿기’는 한 끝 차이였던 것입니다. 몽골 캠프는 저희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광양고 수업을 하던 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모습을 광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 했던 학생도 있었고, ‘안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적나라한 표현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과 함께 상, 하 구분 없는 문화, 다(多)문화에 관해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나담 축제를 다녀 온 후, 광양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첫 수업 날 그 해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바로 ‘만남’ 이었습니다. 실제로 몽골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 해보니 불쌍하지도 않고, 옆 학교의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듯 한 느낌이었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나담 축제를 함께 참여하고 나서, 교육이라는 틀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多)문화에 관한 편견을 심어주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저희 조원들 모두 몽골 이름(타히 : 야생마, 솅브:진주, 엇흐:별, 사르네:장미)을 얻었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활동 중간중간 이때까지 자신만만했었던 문화전공자로서 저희를 반성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은 순간부터 반성을 통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 '새로운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활동 속에서, 조금 더 '멋진' 언니, 누나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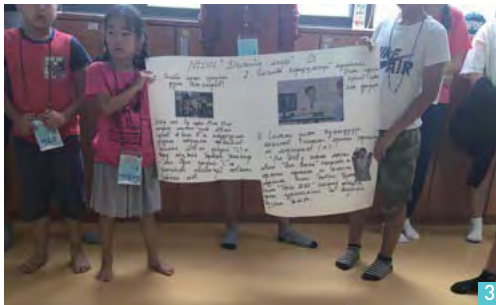
활동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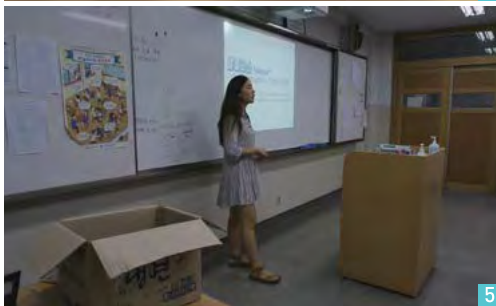
2



3



4



5



6

- 1_ 놀이 전 한국의 전통 놀이와 몽골의 전통놀이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모습
- 2_ 캠프 활동 중 공동체 활동
- 3_ 캠프 활동 중 신문만들기 학습
- 4_ 책 <낮선곳에서 나를 만나다>를 활용, 다문화 이론/인식 개선 수업
- 5_ 수업
- 6_ 태권도반 아이들과 함께 단체 사진

활동 사진



7



8



9

10



11

12



- 7_ 태권도 수업:품새 1장 교육
- 8_ 추석맞이 송편체험 부스 운영
- 9_ 아이들의 송편 빚기 체험
- 10_ 빚은 송편, 찜통에 넣기
- 11_ 자신의 송편 가져가기
- 12_ 허르헉 부스 봉사

활동 사진



13



14



15



16



17



18

- 13_ 허르혁 부스 봉사
- 14_ 나담축제 세가지 경기 중 활쏘기
- 15_ 나담축제 세가지 경기 중 씨름
- 16_ 강벌드 주한몽골대사님과 함께
- 17_ 나담축제 봉사 후 유네스코 동아리와 단체 사진
- 18_ 엽전과 음식을 교환해 도시락을 채우는 재한몽골학교 학생들

활동 사진



19_ 엽전 도시락

20,21_ 경복궁

22_ 국립민속박물관 단체 사진

23_ 국립민속박물관 야외(투호)

24_ 국립민속박물관 야외(그네타기)

心봉사



동아리(팀)명	心봉사		
프로젝트 명	타문화에서 다문화로		
소속 학교	서울예술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예선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2	배근호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3	박순중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4	이주현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5	채다미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6	윤상철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7	조주이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8	서승연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9	박정훈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10	김소담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11	사미경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12	고현정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지도 교수	윤준호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활동 이야기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안산의 문화는 조금 따뜻해졌을까? 안산의 지역사회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다. 그러나 관심과 호감은 비례하지 않았고, 익숙한 주제라 여기며 안일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뜻한 세상을 기획한다는 슬로건을 가진 우리 동아리는 가장 가까운 안산이라는 세상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안산은 범죄율이 높은 도시라 여기고 있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조금은 우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안산역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이질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였다. 우린 그런 문화를 조금이나마 바꿔보려고 다짐했다. 우린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사람이 아니며,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 집중하도록 했다. 즉 ‘타문화가 아닌 다문화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싶어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전적인 게 아니고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다. 생각보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안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곳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가 다니는 ‘다문화 학교’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다문화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때 우리부터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한국말을 못할 거라는 생각, 우리를 거부할 거라는 생각, 한국 아이들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아이는 그냥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고 했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 한정된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곳에 아이들은 그저 해맑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씩씩한 장난꾸러기였다. 그들과 처음 소통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장난치면

서 그들에게 근처 학교 언니·오빠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을 하며 추억을 만들 어주었다는 사실이 참 기뻐던 순간이었고, 언제 또 오냐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다시 방문할 때마다 반겨주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생각났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은 학교 내에서도 계속되었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면, 우리가 학교 밖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가장 가까운 학교라는 세상에 전달하고자 했다. 안산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학생들 다수가 안산은 다문화 라는 인식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 다문화라는 것이 타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지구촌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통해 세상을 위한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알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진행했던 첫 캠페인이 보틀 판매였다. 작은 변화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를 위한다는 초점으로 거부감 없이 다가갔다. 디자인을 구상하고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학교 근처 카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보틀 사용 시 음료 할인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For us For earth' 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이 캠페인을 윤호섭 환경디자이너에게 알리고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림과 뱃지도 나눠주며 지구촌에 대한 인식을 더 크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학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 문기가 들어와 우리의 사비를 모아 소량 제작하여 판매도 하였다. 어쩌면 작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갔다는 생각에 얼마나 설레었던 경험이었다.

그 후 진행했던 캠페인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의미 있었다. 학교 축제에 맞게 찾아오는 타 학교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타문화에서 다문화로라는' 우리의 활동 목적이자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진행한 캠페

페인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국가를 다섯 국가 선별하였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섯 국가의 상징적인 색으로 다섯 종류의 팔찌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가격은 2000원으로 1000원은 실 값, 1000원은 기부형식으로 판매가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며 다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경험했던 안산의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활동은 끝이 났다.

4월부터 준비하면서 약 6개월의 시간동안 참 많은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한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가지고 왔고, 고정관념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하게 되었다. 팀원 중 한명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진행하는 '다문화'가 그들에게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한 학기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다문화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우면서 많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다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은 가슴 아픈 현실도 느껴졌다. 다문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개개인의 문제와 편견으로 비롯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우리가 인식을 바꾸자고 시작한 건데 우리부터 인식을 바꾸게 되었고, 그러한 시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당당하게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해져 버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를 다치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따뜻한 세상을 기획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덕분에 계획했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 기뻐고, 이 활동으로 안산의 지역사회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나아졌으리라 생각한다.

활동 사진



- 1_ 캠페인 시작 전 서로의 다문화 인식을 공유하고 안산 다문화를 주제로 소통한 시간
- 2_ 환경의 날 보틀 판매 행사. 타문화가 다문화로 이어져 지구촌이라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첫 캠페인
- 3_ 다문화 음식 만들기
- 4_ 선생님이 부족하여 자주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다문화학교에서 음식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활동 사진



5 6



7 8



- 5_ 다문화학교 아이들 사진, 텅빈 공간에 아이들이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게 사진을 걸고 복도를 꾸몄다.
- 6_ 다문화학교 여름방학 아이들과 교실 꾸미기 직접 오리고 붙이며 아이들과 텅빈 교실을 채워나갔다.
- 7_ 다문화를 위한 마지막 기부캠페인 진행
- 8_ 다문화 팔찌를 국가별로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안산의 다문화를 알리고, 모금에 동참하도록 함께 진행하였다.

아르스(ars)



동아리(팀)명	아르스(ars)		
프로젝트 명	Take down gun, together (우리, 총을 내려놓자)		
소속 학교	전남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차대헌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공학
2	문찬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
3	신지원	전남대학교	생물공학
4	강담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5	천정욱	전남대학교	수학교육과
6	윤송남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7	박찬형	전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8	서민희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9	김서현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지도 교수	김재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활동 이야기

수행 프로젝트

1. 자연과 평화를 위한 청년 컨퍼런스

1) 배경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의 분쟁과 내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문제'가 평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2) 목적

자연과 환경이 '평화실현'에 있어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환경과 평화'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3) 대상

- (1)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부 학부생 30여명
- (2)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임원진 외 광주청년

4) 주요내용

- (1) 자연과 환경문제가 '평화'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 (2) 전남대학교 수목원 소개
- (3) 전남대학교 내 수목원을 통해 알아보는 자연과 환경
- (4) '평화실현'을 위해 개인이 해야할 역할
- (5) '평화실현'을 위해 단체가 해야할 역할
- (6) '자연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5) 달성 효과

- (1) 전남대 학생 및 전문가 등 30여명 참석

- (2) 전남대 산림자원학부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관심유도
- (3) 언론보도 2건 진행

2.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발대식

1) 배경

‘평화’를 실질적으로 외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단체의 필요성 대두

2) 목적

광주 내에서 실질적 평화 문화활동을 위한 파트너로서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를 개설하여 폭넓은 평화활동

3) 대상

전남대학교 학생 및 광주권 대학생 및 청년 약 90여명

4) 주요내용

- (1)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소개
- (2)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발대식 축하 공연
- (3)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발대식 축하영상 시청
- (4)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비전 선포식
- (5)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기념 촬영

5) 달성 효과

- (1) 광주지역 대학생, 청년, 교수, 기관장 등 약 100여명 참석
- (2) UN이라는 전쟁방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단체의 이름으로서 광주 내에서 여러 평화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 마련
- (3) 광주전남 내 최초의 ‘유엔학생단체’ 설립
- (4) 약 5개 언론사 언론보도

3. 평화염원 티셔츠 만들기

1) 배경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내 ‘티셔츠 만들기 부스’ 운영을 맡아 월 2회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됨

2) 목적

본 행사에 참여하는 남녀노소 다양한 광주시민들에게 유네스코 현장의 이념과 평화의 소중함 등을 소개하고 알리고자 함

3) 대상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광주시민(월 2회 총 6회)

4) 주요내용

- (1) 주문제작 된 흰색 반팔 티셔츠의 뒷면에는 날개 모양으로 ‘유네스코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행사 준비
- (2) 티셔츠 앞면에는 본 행사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이 직접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그림이나 문구를 옷에 표현하여 항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과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이 ‘평화’라는 단어를 접하게 함

5) 달성 효과

- (1) 2개월간 총 6회 프로그램 진행
- (2) 회당 광주시민 약 100여명 체험 및 참가
- (3) 유네스코 현장을 주제로 한 평화관련 교육 진행
- (4) 광주광역시장의 2회 방문 및 아르스 홍보 효과

4. World Peace Party

1) 배경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청년들이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가능하기에 함께 모이는 계기가 필요

2) 목적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 마련

3) 대상

- (1) 광주지역 대학생 및 청년
- (2) 전남대학교 유학생

4) 주요내용

(1) 힙합공연

국내외 인기 힙합 음악을 함께 즐기는 힙합 타임, 전남대학교 흑인음악동아리 SU:M 및 비트박서 초빙

(3) 체험부스 운영

파티를 즐기기 위한 '마술, 타로,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보드게임'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4) 글로벌 유스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한 한국 청년 및 외국 유학생 간의 자유로운 교류 시간

(5) 글로벌 푸드 케이터링

10개국의 나라를 상징하는 핑거푸드 체험

5) 달성 효과

- (1) 대학생, 유학생 등 약 200여명 참석
- (2) 아르스 홍보 효과

5. 국제청년 라운드 테이블

1) 배경

평화실현을 위해 각 나라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평화실현

방안을 이야기하는 계기 마련

2) 목적

국내외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실현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3) 대상

- (1)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 우간다 총 5개국 청년
- (2) ‘아르스’ 팀원

4) 주요내용

- (1) 국가별 대표청년 소개
- (2)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평화실현 방법’
- (3) 각 나라의 평화실현 운동, 평화실현 모범 사례
- (4) 국제적인 평화활동을 위해서 ‘청년’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
- (5) 2016년 청년들이 평화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6) 평화 레크레이션

5) 달성 효과

- (1) 5개국 외국 청년 참석
- (2) 광주 비엔날레와 협업 활동
- (3) 전남대학교 외국인 교류 프로그램 연계활동
- (4) 아르스 홍보 효과

6. 815 광복절, 빛과 평화의 전야제

1) 배경

국내 청년들에게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목적

815 광복절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빛’이라는 주제로 평화문화, 평화전야제를 열도록 함

3) 대상

전남대학교 학생 및 광주시민

4) 주요내용

(1) 평화염원 캘리그래피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캘리그래피로 적어 엽서로 증정하여 항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2) 다육식물 나누기

직접 작성한 ‘평화의 메시지’를 다육식물 화분에 부착하여 식물을 키우며 평화를 염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3) 평화문화 전야제

어쿠스틱밴드, 아카펠라팀의 공연으로 평화문화전야제 진행

5) 달성효과

(1) 학생, 교수, 외국인 등 광주시민 약 70여명 참석

(2) 3개 언론사 언론보도

(3) 아르스 홍보 효과

7. 2016 제 1회 광주 유엔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1) 배경

매년 9월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 지구촌 곳곳에서 기념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도에서만 진행되어 왔음

2) 목적

매년 9월 21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유엔세계평화의 날’을 광주에 도입하여 이를 기념하고 평화의 의미를 나누고자 함

3) 대상

광주의 10개 대학교 학생, 교수, 평화운동가, 광주시민

4) 주요내용

- (1)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 기념식, 세계평화의 날 소개, 귀빈 축하, 축하영상, 축하공연, 평화 퍼포먼스, 기념촬영 진행
- (2) 평화염원 캘리그래피
- (3) UN군 페이퍼토이 체험부스
- (4) 전세계 내전발생지역 교육 부스
- (5) 태극기 교육 및 핑거푸드 케이터링 부스
- (6) 컬러테라피 및 피스액션페인팅
- (7) 페이스페인팅, 평화 네일아트
- (8) 세이브 더 칠드런 홍보부스
- (9) 에코브릿지 팀의 ‘멸종위기종 홍보부스’
- (10) 국제 난민문제 홍보부스
- (11) 평화식물 나누기

5) 달성효과

- (1) 광주전남 지역 최초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 학생, 교수, 전문가 등 광주시민 약 200여명 참석
- (3) 언론사 약 8개 신문 인터뷰 및 언론보도
- (4) 광주전남 지역 평화운동가 네트워킹
- (5) 아르스 홍보 효과

활동 사진



1,2_ 6월 1일 '자연환경과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남대학교 수목원 컨퍼런스
 3,4_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여 진행한 '유엔한국학생협회 전남지부' 발대식
 5,6_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내 '평화염원 티셔츠 만들기' 제작부스 운영 / 총 6회

활동 사진



7 8



9 10



11 12



7,8_ 국내외 청년들의 국가간 이해를 위한 원탁회의 '국제청년 라운드테이블' / 2회 진행

9,10_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한 '빛과 평화의 전야제' 문화행사 진행

11,12_ 9월 21일 '제 1회 광주 유엔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Earthlings



동아리(팀)명	Earthlings		
프로젝트 명	공장식 축산환경의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비교		
소속 학교	연합동아리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이희경	동양미래대학교	유통마케팅과
2	임세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3	이명학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	인지원	성신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5	이동현	한국외대학교	지식콘텐츠학부
6	송채영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7	김수기	비학생	디자이너
8	김태형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지도 교수	권오영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활동 이야기

평소 치킨, 달걀, 고기 등을 먹으면서 이 음식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식탁까지 오게 되었는지 매번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송이나 책들을 통해 동물들이 항생제 과량 투입, 활동 반경 제한, 부적절한 사료 등의 반인권적인 가축 환경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보지 않았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한 우리 Earthlings 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인증 받은 양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의 가축 환경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농장들의 모습과 동물권의 보호 및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활동의 시작으로, 비건 페스티벌에서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비건 페스티벌이란 지구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인데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앞서 일반 사람들이 아닌 환경, 생태 등에 대해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했고 앞으로의 프로젝트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비건 페스티벌 부스 운영’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취지에 맞게, 부스에서는 ‘비건에게 묻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터뷰 진행을 하였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니만큼 환경 및 생태에 대한 생각, 지구를 지키려 실천하는 방법 또한 제각기 달랐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생각도 남달랐으며 지구 환경 및 생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환경, 생태 및 동물복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이후의 프로젝트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팀원들 다 같이 농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동물복지인증 양계장인 오탄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농장 관리자분이 직접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인증 농장과 일반 농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동물복지인증 농장이 국내에 많지 않은 이유가 경영의 현실적인 측면이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들은 후, 우리 Earthlings 팀은 닭들의 생활환경을 몸소 체험해보고자 관리자분의 허락을 구하고 사육장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닭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위생 상태, 냄새, 활동 반경들을 확인하고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에 사람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탄 농장을 방문하는 데에는 순탄치만 않았습니니다. 국내에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수도권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Earthlings 팀의 프로젝트 목적성과 방향에 부합하는 오탄 농장 방문을 통해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운영 환경과 현장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반 농장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환경 여건이 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육장에는 생각보다 과도한 닭들이 수용되고 있었고, 냄새도 쾌적하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농장 경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동물 복지만을 생각하기에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농장 운영 측면과 동물 복지라는 이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개개인이 개선 방안을 생각해봤으며, 팀원들 간에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축 환경의 실태를 알리고,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동물권 보호와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전개 노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장에서 보고 느낀 많은 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길거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7월, 첫 번째 캠페인은 홍대 입구 인근에서 영상 시청, 조형물 전시, 공장식 축산의

실태 인터뷰, 부스와 케이지 체험으로 페이스북 좋아요, 동물복지 인증마크(문제) 홍보피켓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케이지 체험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Earthlings 팀이 직접 만든 체험형 케이지를 돼지 인형과 함께 부스에 전시하고 눈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며, 공장식 축산 농장의 실태 다큐멘터리를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SNS와 홍보피켓으로 Earthling팀도 알렸습니다. 공식적인 첫 캠페인이었던 만큼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설명하는 것이 막막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직접 체험,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예상외로 많은 사람에게 알렸으며, 캠페인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물론 상품을 보고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설명을 다 듣고 나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흥미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월 첫번째 캠페인의 성공에 힘입어 곧바로 두 번째 캠페인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케이지 체험에 집중하기 위해 상품수령 방법을 변경하고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등 모든 팀원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였고, 그 결과 두 번째 캠페인은 첫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들과 대화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 케이지 체험을 하고 난 후 설명을 들으며 저희가 어떤 단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 주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관심을 보여도 딱 거기까지였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희의 설명을 듣고 더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했지만, 걸으며 봤을 때 그 정도의 열의를 보인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처음보다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았던 7월 캠페인은 8월을 기약하며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에 행사하였을 때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을 붙잡아 농장 동물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물어보는 등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예상외로 긍정적인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받은 육류를 기꺼이

사 먹겠다고 하는 분들과 공장식 축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에 동의하며 함께 힘쓰고 싶다고 한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많은 분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8월 캠페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좀 더 크게 판을 벌이고 싶어 교육으로 팔을 넓혔습니다. 팀원들이 직접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에 찾아가 농장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 동물복지인증마크가 무엇인지 등 농장 동물에 대해 짧은 강연을 하며 정보도 알리고 의견교류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8월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팀원들도 강연을 해보며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농장 동물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청소년들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마지막 캠페인을 고민하던 중, 프로젝트의 목적인 ‘동물복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택권 제공’에 준거하여 저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활동은 정확한 정보전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인증마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물복지를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선택’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동물복지인증마크 한강 캠페인’을 기획하고 활동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본래 습성대로 키우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참신하며 재미있는 방법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동물복지인증마크 달걀 카나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진 캠페인인 만큼 캠페인 날을 ‘제10회 그린 리본 마라톤 대회’ 행사가 있는 날로 잡아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회로 한강에 모인 사람들이 4,000명이 넘어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인증마크 한강 캠페인’ 또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욕심으로 인해 몸은 힘들었지만 뿌듯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장 6개월간의 농장 동물 복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성장하였습니다.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복지상태를 느꼈고, 따라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현재 우리 Earthlings 팀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우리의 캠페인 덕분에 농장 동물 복지의 실태에 알게 되었으며, 또 그중 누군가는 실천으로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 “농장 동물? 이런 무거운 프로젝트를 해도 괜찮을까?” 하며 긴가민가했던 모든 팀원은 지금 농장 동물의 정의만 외쳐도 줄줄 나올 정도로 나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설렘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Earthlings의 활동 보고를 마칩니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5월 비건페스티벌
- 2_ 6월 농장 방문
- 3_ 7월 캠페인
- 4_ 8월 교육
- 5_ 캠페인
- 6_ 페이스북 이벤트

에코브릿지



동아리(팀)명	에코브릿지		
프로젝트 명	사람과 자연의 동행		
소속 학교	전남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차민희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2	양연정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3	장진우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4	문진솔	전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5	신지원	전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6	이청환	전남대학교	졸업생
지도 교수	이황희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활동 이야기

배경 및 목적

생물다양성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며 인간과 생태계의 생명부양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현재 생물다양성은 개발 및 오염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생물은 모두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한 종의 멸종이 자연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종의 문제에 대해 나오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의 모습과 교육활동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활동 내용

1. 교육활동

1) 일시

- (1) 2016년 6월 10일 광주 수완고등학교
- (2) 2016년 6월 24일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 (3) 2016년 10월 28일 광주 효천다솜유치원

2) 목적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내용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교육한 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왜 멸종위기종이 되었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멸종위기종 타투 스티커와 색칠하기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2. 멸종위기종 캐릭터 제작 및 광주프린지페스티벌

1) 일시

- (1) 2016년 8월 27일
- (2) 2016년 9월 10일
- (3) 2016년 10월 22일 광주 금남로일대

2) 목적

멸종 위기종을 캐릭터로 만들어 친숙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3) 내용

반달가슴곰, 여우, 사향노루, 크낙새, 긴꼬리딱새, 두루미, 멧꿩, 풍란, 수달, 청띠제비나비를 캐릭터로 만들었다. 이 캐릭터를 활용해 '색모래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색모래 모자이크 체험을 하는 동안 멸종위기종에 관련된 교육을 시행했다. 8월 27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는 강릉대 쿠사탐이 함께 해 강릉의 문화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3. 가거도 탐방 및 다큐멘터리 만들기

1) 일시

2016년 8월 14일 ~ 8월 19일 가거도

2) 목적

가거도의 모습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3) 내용

8월 14일 새벽 네시 반, 우리 가거도 팀은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광주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터미널에서 목포로, 목포터미널에서 목포 여객선 터미널로 이동할 때 까지 가거도에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두려움과 설렘 반반이었다. 최근 신안군의 한 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방인 여자 둘과 남자 한 명이 외딴 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그러나 그 곳의 자연 환경을 포기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대신 지도교수님께서 가거도에서 휴가 중인 시기에 맞춰 가기로 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네 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가거도. 처음에는 실망 그 자체였다. 내가 상상했던 가거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예쁘지도 않고, 냄새나고 더러웠다. 이런 곳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 의심을 교수님께서 읽었는지 늦은 오후에 가거도의 회룡산 선녀봉에 올라가보자고 하셨다. 회룡산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는 소리는 ‘우와,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등의 감탄사였다. 등산로는 밀사초와 콩짜개 덩굴, 큰 바위들이 많아 마치 식물원을 연상시켰다.

또한 선녀봉에서 본 마을의 모습은 항구에서 본 모습과 많이 달랐다.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웅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

둘째 날, 아침 7시부터 우리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가거도 3구로 향했다. 가거도의 길이 모두 시멘트 길이고 또 산길을 깎아서 만든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거도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아야 했기에 튼튼한 두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삼아야 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반나절을 걸어 도착한 3구. 1구의 항구와는 또 다른 마을의 모습이었다. 열 가구가 채 되지 않는 마을은 낚시꾼들의 핫플레이스였다. 우리가 만난 낚시꾼들이 얘기하길 가거도만큼 귀한 어종이 잘 잡히고,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었다고 했다. 3구 촬영을 마치고 정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마을 주민께

서

오셔서 우리에게 대해 물으시곤 고생한다고 마을의 특산품인 후박나무 막걸리를 가져다 주셨다. 아침부터 걷느라 힘들었는데 후박나무 막걸리를 먹으니 힘이 불끈 솟았다. 오후에는 시멘트 길 말고, 원시림의 등산로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곳 또한 장관이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풀이 무성했지만, 생물이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다. 곳곳에 금새우난과 천남성, 콩짜개 덩굴이 있었고, 기생여뀌같은 예쁜 꽃들이 우릴 맞아주었다. 길이 험했지만 힘든 것도 모르고 촬영하며 열심히 하산했다. 그러다 교수님 다리를 봤는데 작고 까만 막대기가 군데군데 붙어있었다. 여긴 분명 산거머리가 없다고 했는데, 설마 하면서 교수님께 물었다. “교수님, 다리에 뭐가 붙어있네요. 이거 혹시 거머리인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교수님께선 아무렇지도 않게 “응, 거머리야” 하시곤 툭툭 털어버리셨다. 오마이갓! 끔찍했다. 거머리가 내 피를 빨아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뒤로 촬영을 접고 원시림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중간에 넘어졌지만 거머리가 더 무서웠기에 벌떡 일어나 달렸다. 내려와서 보니 교수님과 우리 팀원들은 모두 거머리에 물려있었다. 팀장인 나만 거머리에 물리지 않았다. 열심히 땀 보람이 있었다.

셋째 날, 이틀간 정든 1구 마을을 떠나 가거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2구 향리마을로 숙소를 옮겼다. 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존재하다니. 정말 기대 이상인 곳이다. 깨끗한 바다와 파도소리, 아름다운 석양, 그리고 꽃들이 가득한 초지까지.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될 만큼 아름다웠다. 새들의 중간기착지라는 이곳은 가히 그럴 만 했다. 나중에 꼭 철새들이 이동할 즈음에 다시 와서 그 장관을 보고 싶은 곳이었다.

넷째 날, 우리는 우리나라 섬 중 세 번째로 높다는 639m의 독실산을 오르기로

했다. 2구에서 독실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생각보다 가파르고, 위험했으며 힘들었다. 카메라를 들고 등산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중간 중간 정말 보물 같은 곳들이 숨어있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석곡의 자생지부터, 직접 보진 못했지만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5호인 흑비둘기의 울음소리, 귀여운 동박새, 흰배지빠귀, 바다직박구리, 아슬아슬 절벽타기 달인 염소, 그리고 곳곳에 청띠제비나비를 비롯한 예쁜 나비들, 무서운 산거머리, 바닥에 작은 도마뱀들까지 과연 이곳은 여러 생물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것이 틀림없다. 가거도에는 구굴도라는 작은 부속 섬이 있다. 이곳은 바다제비의 최대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 34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다섯째 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출입허가 신청서를 내 출입허가를 받은 구굴도에 가기로 했다. 배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이 섬은 하나의 돌이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해야 오를 수 있었고, 또 매우 위험했다. 섬이 거의 대부분 밀사초로 덮여있었고, 중간 중간에 예덕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이 있었다. 이곳에 바다제비가 최대로 번식한다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밀사초를 들어보곤 믿을 수 있었다. 모든 밀사초 밑에 바다제비가 살고 있었다. 발밑의 모든 수풀 사이로 생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전문가가 아닌 내가 들어간다면 다 밟아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구굴도를 오르기로 결정했다. 부팀장인 연정언니가 구굴도를 오르는 동안 나는 구굴도 아래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곳곳에 밤에 몰래 온 낚시꾼들의 흔적들이 보였다. 천연기념물이라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곳이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 낚시꾼들이 종종 찾다고 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바다제비들이 먹고 죽진 않을까 염려되었다. 앞으로 이 구굴도가 잘 보존되어 바다제비가 맘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 날, 가거도를 떠나기 전 우리는 가거도 주민들이 예전에 이용했던 해식동굴을 찾았다. 자연적으로 생긴 이 해식동굴에 옛 주민들은 배를 보관했다고

한다. 해변은 민박집 아저씨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맑은 해변 뒤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동굴과 해변에 쌓여있었다. 대부분 중국에서 밀려온 해양 쓰레기였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도 있었을 것이다. 쓰레기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결국 그 쓰레기를 바다 생물들이 먹고, 그 바다 생물을 우리가 먹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해양 쓰레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이렇게 우리의 짧지만 길었던 가거도 탐방이 끝이 났다.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그곳에서 자연과 사람이 동행하는 모습은 어떻게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 가거도에서의 활동은 자연과 사람 편으로 나누어 다큐로 제작했다. 여행 일정을 담은 다큐는 추후 제작할 예정이다.

4. 가거도 사진전 및 멸종위기종 알리기

1) 일시

2016년 9월 21일 금남로 공원

2) 목적

가거도 생물과 관련된 사진전을 열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린다.

3) 내용

제4기 볼런티어 팀인 아르스가 주최하는 광주UN세계평화의 날 행사에서 ‘가거도 사진전 및 멸종위기종 알리기’ 부스를 운영했다. 야외인 점을 고려 해 사진은 작게 출력해 전시 했으며, 사람들에게 가거도의 생물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멸종위기종 타투 스티커를 제작해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후기와 성과

5개월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며 교육도 나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사진전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멸종위기종들이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볼런티어의 활동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앞으로 전진 해야겠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광주수완고 교육
- 2_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교육
- 3,4_ 효천다솜유치원 교육
- 5_ 8월 27일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 6_ 8월 27일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강릉대 쿠사랑

활동 사진



7_ 9월 10일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8,9_ 가거도 사진전

10,11_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12_ 스티커 기부 행사

활동 사진



- 13_ 가거도 탐방 준비, 전남대학교 새 관찰
- 14_ 무등산 새 관초팔
- 15_ 구굴도 정상에서
- 16_ 구굴도 바다제비
- 17_ 가거도 팀 단체 사진
- 18_ 가거도 밥상

여기는 에코



동아리(팀)명	여기는 에코		
프로젝트 명	추억을 새로운 추억으로		
소속 학교	연합동아리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황유민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2	박종원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3	정신수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4	김동규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5	송명석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6	서인해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7	김아름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8	왕유진	송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9	황경민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10	김다미	덕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11	나정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지도 교수	강인원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활동 이야기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했던 각종 포장지와, 더운 여름 땀을 식히기 위해 찾았던 음료가게의 플라스틱 컵들처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물건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쓰레기로써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분류되고, 수거되어 각자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 됩니다. 물건으로, 에너지로 재활용된 것들은 또 다른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마지막까지 재활용 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현재로써는 소각, 매립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해마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늘어가지만, 반대로 쓰레기 매립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매립지를 반겨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만약 어떻게든 매립지를 유지한다 해도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와 메탄가스,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쓰레기는 항상 우리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을 말하지만, 사실 재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했고, 최근 떠오르고 있는 ‘업사이클’을 주제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일상적인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단기홍보활동과 둘째, 직접 업사이클에 참여하여 사용가치가 떨어진 물건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동아리 활동을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단기 홍보활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8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구사랑탐험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활동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 정보를 간단한 놀이의 형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버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여 화분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일상적으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5월 22일 반포한강공원에서 활동했습니다. 우선 첫 홍보활동에서 호응이 좋았던 일회용 컵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여 생소한 업사이클을 재미있게 소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나들이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와 업사이클 홍보를 위해 텐트를 찾아다니며 스피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7월 2일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업사이클을 공유하고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업사이클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8월 6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 남가좌1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남가좌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용과 업사이클을 자세히 소개하고,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업사이클 교실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에코의 마지막 활동으로 10월 9일, 다시 반포한강공원을 찾아 ‘한그루의 편지’ 부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재활용과 쓰레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생종이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동아리는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체험으로써 환경문제와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였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호응해주셨기에 성황리에 홍보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홍보활동과 동시 진행했던 장기프로젝트는 ‘추억을 새로운 추억으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저희들이 직접 업사이클하여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물건으로 재탄생 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내부적인 토의 끝에 최종적으로 옷을 기부 받아 주머니로 업사이클 한 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부’에 환아들을 위한 입원키트 주머니로써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저희는 9월 20일까지 물품 기증을 받았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회에서 1박스 (총 22벌), 개인 기증자들로부터 3박스(42벌), 그 밖의 날개 기부 49벌로 총 113벌의 약 7박스를 기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부 물품을 11월 30일까지 주머니로 업사이클 할 예정이고 12월 22일경 경인지부에 기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품으로 USB를

구매하여 총 13분께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내주신 추억을 대신해서 그분들께서 다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usb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3월에 결성한 저희 동아리는 지금까지 약 8개월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던 만큼 좋았던 점도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활동 소감

홍보팀 김다미 홍보팀으로써 SNS 자료를 제작하며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노력했다. 장소와 시간에 맞는 행사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항상 더 창의적인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할 때면, 참여해주신 한분 한분이 떠올라 행복했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또, 환경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있는 활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

대외협력팀 김동규 여기는 에코 활동은 친구의 추천으로 다른 팀원들 보다 늦게 참여하게 되었지만, 기존 동아리 구성원들만큼 부족함 없는 경험을 했다. 사실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 동아리 참여를 고민했다. 새로운 경험을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동아리 활동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참여했을 때,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고, 흥미로웠던 것 같다. 활동을 마친다는 사실이 아쉽기까지 하다. 여기는 에코를 통해 어떤 물질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은 물론이고, 사람을 대하는 법, 일을 할 때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준비성 부족이나 동아리원간의 교류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 스스로를 단단히 하고 세상을 배우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

홍보팀 황경민 대입하기 전부터 재능기부 활동에 많이 참여해왔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뒤 학교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그러던 중 여기는 에코 활동에 홍보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학교 활동과 병행하다보니 대외활동에까지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이해해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말 우리들이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작은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마다 팀원들은 단단히 뭉쳐졌고, 서로가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함께여서 지금까지의 활동이 가능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방관자였던 내가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기도 했고, 남들보다 먼저 실천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실제로 활동 중에 나와 같이 환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번 우리 활동은 끝나지만 이 활동이 이어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총무 정신수

업사이클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들이 버리는 물건, 가치를 다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그것에 새롭게 의미있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보람찬 활동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에게 필요없다고 생각한 물건을 직접 재활용해 기쁜 얼굴로 가져갈 때,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신기하다고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 또 총무라는 역할은 처음 경험해봤는데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1년간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 같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커보였지만 실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문제로 실행하지 못한 기획들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실현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돈을 적재적소에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대외협력팀 김아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아리 활동에서 대외협력을 지원한 이유도 그 이유에서이다. 약간 내성적인 나로써 정말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이었다. 대외협력은 아무래도 외부 업체나 단체들과 동아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대학생 동아리에 차가운 사회에 상처받기도 하고, 오지 않는 연락을 요령 없이 기다리기만 한 적도 있었다. 또 한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책임진다는 무게를 절실히 느끼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지만,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여기는 에코는 나에게 있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한사람의 성인으로 사회를 겪었던 소중한 첫 경험이었다. 또 우리들의 작은 날갯짓에 불과한 활동에 함께 공감해주고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보람을 느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

대외협력팀 송명석

'여기는 에코'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학과 특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다. 역시 활동 중반쯤 참여했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허나 팀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다. 평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내게는 좋은 기회였고 웃으면서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중반에 합류하여 실수가 많았던 터라, 팀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번을 계기로 보다 잘 적응해

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팀장 황유민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임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활동이었다. 팀원 들끼리의 의견은 서로 다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며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팀원 개개인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설레고 보람찼다. 이 볼런티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다른 단체나 기업에게 연락을 드리고 기획서도 작성해 보았다.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던 이 활동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 같다. 앞으로의 내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국립민속박물관 '지구사랑탐험대 활동' (일회용컵 화분 만들기 체험)
- 2,3_ 반포한강공원 일회용컵 화분 만들기 체험
- 4_ 7월 2일 길거리 피켓 홍보
- 5_ 8월 6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업사이클 교실 첫째날 활동 후 기념 사진
- 6_ 10월 9일 반포한강공원 '한그루의 편지' 활동

예그리나



동아리(팀)명	예그리나		
프로젝트 명	찬봄 (Chandraban Volunteer/Voluntary Movers) 프로젝트		
소속 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강수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2	김나혜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3	김송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4	이은민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5	최도휘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지도 교수	김경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팀 예그리나는 2014년부터 인도 오르차 지역의 불가촉천민 마을 ‘찬드라반’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찬드라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인 도움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목적 아래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활동 내용

1. 캠페인 진행

1) 플리마켓 진행

먼저는 예그리나의 물품들을 판매하여 후원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중에게 인도의 인권실태와 찬드라반의 상황을 알려 해외 빈곤지역 또는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 (1) 5월 17일 서울여자대학교 미니섬 플리마켓
- (2) 7월 16일 수원 화성 소담미술관 ‘마스마켓’
- (3) 7월 30일 홍대 땡땡거리 ‘밤의 피크닉’
- (4) 7월 31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아트로드 브릿지’
- (5) 8월 27일 홍대 땡땡거리 ‘밤의 피크닉’
- (6) 9월 22일 서울여자대학교 미니섬 플리마켓

2) 카드뉴스 제작

많은 후원자분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예그리나 활동의 의의를 시각적 매체와 함께 한눈에 보여 드리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카드뉴스는, 예그리나의 시작과 설립 목적을 담은 이야기로 구성하였습니다.

3) 꾸준한 SNS 홍보 및 이벤트 진행

Facebook과 Instagram등의 대중적인 SNS를 통해 예그리나의 활동을 알리고 찬드라반의 상황을 알림으로써 많은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다양한 곳에 예그리나가 소개되었고 그 중 포스코 공식 사내 홈페이지에도 실리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 페이지 좋아요 532명

(2) 게시물 업로드 : 총 20개

2. 인도문화 공부: 독서토론 및 영상시청

1) 독서토론 「인도는 힘이 세다」

“상대에 대한 무지가 갈등을 만든다.”는 원리를 따라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함으로써 인도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인도인에게 문화폭력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에 위배되지 않는 좋은 봉사과 교육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인도관련 영상

(1) ‘MBC연중기획 아시아-버림받은 사람들, 달리트’

(2) ‘[다큐클래식]악습으로 죽어가는 인도여성’ 등 시청

찬드라반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실제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접하며 피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간접경험의 기회를 통해 그들을 이해해 보고, 인도에 갔을 때 그들이 너무 낮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다수의 달리트들이 아직도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달리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 이 변화의 불씨를 지피우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3. 후원금 모금

1) 사업물품 제작

예그리나는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매년 예그리나 만의 독특한 사업물품을 제작해왔습니다. 올해는 ‘에코백과 보틀’을 물품으로 선정하여 4월부터 디자인과 재질, 가격, 업체 등을 조사하며 준비했습니다. 6월 6일에 에코백 200개와 보틀 100개주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 사업물품 판매

기존 예그리나의 물품인 엽서와 노트는 올해 초부터 계속 판매해왔으며, 2016년의 물품들은 6월 27부터 공식적으로 물품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무리단계로 각각 10개 이하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3) 해피빈 모금함 개설

예그리나 물품이 거의 소진됨으로써 애초에 계획했던 펀딩 단체들보다 모금함 개설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협력단체인 국제개발 NGO 아시안프렌즈를 통해 12월 14일까지 총 100만원 달성을 목표로한 네이버 해피빈에 모금함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총 833,7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4)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Facebook을 통해 예그리나를 알게 된 한 교회로부터 약 4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개인들의 관심으로 후원금이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4. 교육프로그램 준비

1) 면생리대

예그리나는 봉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아시안프렌즈와 ‘지금, 찬드라반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를 여러 번 나누게 되었고 그 중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찬드라반 여성들이 위생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한 채, 변변한 생리대 없이 더러운 헝겊이나 나뭇잎, 톱밥 등을 이용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대의 학회인 저희는 이런 상황을 듣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아픔을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아동 지원과 더불어 여성위생에 대한 인식교육과 지원 또한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성 위생교육과 지원을 위해 면생리대를 함께 만들고, 현지 마을 자체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천과 도안을 선물해 주기로 정한 후,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러 면생리대 제품들과 개인이 만든 도안들을 비교해가며 ‘무엇이 만들기 쉽고, 편리하며, 위생적인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던 중,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여성환경연대’의 면생리대 프로젝트팀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셨던 면생리대 도안을 제공 받았고 저희 예그리나 팀원들에게도 ‘가서 위생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인도 현지 위생·교육활동가이신 ‘Nyamat’씨를 소개해주셔서 인도의 위생 상황과 같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저희가 12월에 가기 전에 먼저 마을에 들어가 1차 위생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준비과정, 현지에서 협력해서 얻은 도안, 교육받음, 샘플 만들어봄.)

2) 그림책

예그리나는 매번 인도에 갈 때 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 물품에 대한 일회성 지원은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계속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등의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더불어 제공될 응급위생키트의 약품은 어떻게 쓰는지, 작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담았습니다. 이는 알아보기 쉬운 그림들과 힌디어와 영어로 된 간단한 문장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자신이 인도 어느 곳에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나라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줌으로써 세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여성위생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면생리대를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법, 세탁법 등을 담아 저희가 한국에 돌아온 후로도 위생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길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그림책정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3) 놀이프로그램

저희는 교육을 놀이프로그램에 담아 아이들과 함께 놀며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분야는 ‘위생놀이, 예술놀이, 체육놀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루 담아내고 유익한 활동도 될 수 있게 꾸며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기준은, 예그리나의 이전 기수들과 찬드라반으로 가는 서울여대 해외봉사팀들이 실행 했던 놀이 중 효과적이었던 것들입니다. 이것에서 더 발전시켜 친환경적이며 인도 문화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위생놀이: 세균 그림 닦아오기 놀이 등
- (2) 예술놀이: 이름뱃지 만들기, 국기 그리기, 교실 꾸미기 등
- (3) 체육놀이: 림보, 달리기, 공놀이 등

볼런티어 타 팀과의 네트워크 활용

저희는 올해 볼런티어 프로젝트 4기를 함께하고 있는 타 팀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그리나 활동에 여러 도움과 자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아르스 팀

먼저, 발대식 때 한 조였던 ‘아르스’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그림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2. 강릉원주대 KUSA 팀

강릉원주대 KUSA팀에서 예그리나 후원물품판매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7월 16일, 강릉에서 개최된 ‘명주 나이트 플리마켓’에서 110,000원의 후원금을 모금해주셨습니다.

3. 나그리다 팀

마지막으로, 8월 18일에 청계천에서 열린 ‘나그리다’팀의 캠페인에 예그리나 팀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나그리다의 활동 모습을 보며 타 팀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캠페인 진행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와 자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이번 예그리나 3기가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잡았던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인들 위주로 이루어졌던 물품 판매와 캠페인을 대중까지로 확장시키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찬드라반의 자립을 위해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다수의 폴리마켓에 참가하여 많은 대중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부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찬드라반을 알릴 수 있었고, 많은 후원도 얻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원래 구호활동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을 보고, 비관심인들의 관심을 돌리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그리나가 올해 인도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교수님의 자문을 얻는 등 여러 시도를 거쳤지만, 이 배경지식들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작으로 연결시키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구상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찬드라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찬드라반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NGO 아시안프렌즈와 협력하여 어떤 교육이 적합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전 기수나 다른 단체에서 했던 교육봉사들, 만들 ‘그림책’을 중심으로 찬드라반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교육의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그리나 3기가 처음 준비해가며 직면하게 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좋은 조연자와 협력단체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1. 예그리나와 찬드라반 알리기

이번 예그리나는 홍보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야외 캠페인을 총 6회 실시하였고, 예그리나 소개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첫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약 6000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을 개설하여 353명(10월 27일 기준)의 일반인들의 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보의 폭을 더욱 확장하고자 노력하였고, 지인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 얻게 되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후원금 상황(물품판매와 모금)

현재 10월 29일 기준으로 후원계좌1,647,095원과 해피빈888,700원 총 후원금 2,535,795원이 모였습니다.

3. 후원물품 상황

개인 후원자와 단체를 통해 아동 티셔츠를 후원 받았습니다.

4. 면생리대와 그림책 샘플 제작

이 두 활동은 이전에 예그리나가 해온 활동과는 차별화된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찬드라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면생리대는 여성환경연대에서 교육을 받아 실제로 제작해보았고, 그림책은 제작과정 중에 있습니다. 연말 인도에 갈 때 가져가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5. 인도 현지 활동가와의 연결 성공

여성환경연대를 통해 인도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인 Nayamat씨와 연결이 되어 면생리대의 실효성 유무와 현지에 적합한 도안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찬드라반에 가서 저희 학생들끼리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여성위생에 대한 1차 교육 및 동기부여 부분을 부탁드렸습니다. 12월 초, 저희가 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시안프렌즈와 함께 가는 것으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참가 소감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잘 알아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들끼리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무척이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던 생각을 실제로 그려내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도 찬드라반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예그리나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감동을 받았고, 타 팀과의 교류 및 많은 사람·기관의 협력이 활동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볼런티어 프로젝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많은 일들을 추진력 있게 끌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그리나 자체적으로만 진행했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일을 축소시켜 버렸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유네스코와 함께 약속했던 계획들을 지켜야 했기에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예그리나 팀원들은 12월 28일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일 년 간 준비한 것들을 3주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잘 전달해주고 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세대팀과 그 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활동 사진



1



2



3



5



4



- 1_ 5월 17일 SWU 미니섬 플라마켓
- 2_ 7월 31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아트로드브릿지'
- 3_ 9월 22일 SWU 미니섬 플라마켓
- 4_ 계단 에코백
- 5_ 독서토론 및 영상시청 모듬

활동 사진



6



7



8



9

- 6_ 보틀
- 7_ 엽서 및 노트 제작(2015년)
- 8_ 유네스코 вол런티어 4기 'KUSA'
- 9_ 국제 개발 NGO '아시안프렌즈' 방문

울림



동아리(팀)명	울림		
프로젝트 명	그날의 의미		
소속 학교	경민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이주혜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2	박성호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3	선승원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4	윤광진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5	김민지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6	유경서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7	이소연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8	이승준	ICT폴리텍대학	정보통신설비과
지도 교수	김재경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활동 이야기

저희 팀은 처음에는 다양한 한국에 역사적 사건을 알릴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가지의 사건보다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여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주제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 5월에는 팀을 알릴 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족을 주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과 저희학교 만학도 이모님들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내가 꾸리고자 하는 가족',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3가지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 하였지만 인터뷰가 진행될 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놓았고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촬영을 하던 저희도 눈물이 났었습니다.

가족 프로젝트를 끝내고 6월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주제로 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 달은 '나눔의 집' 소장님이자 '국제인권평화센터' 사무총장이신 '안신권' 소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강연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었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평소에 몰랐던 사실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 등 2~3개의 인터넷 기사가 나왔고 각종 인터뷰와 방송 제의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강연에 참관하여 줄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7월 달은 의정부 시내로 나가서 '희망나비 쪽지'라는 이름으로 캠페인과 '나눔의 집 기부 팔찌'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이라고 하시며 소정에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참여해주는 분들을 보며 날은 더웠지만 밖으로 나온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8월 달은 7월 동안 판매하였던 팔찌 수입금과 기부금, ‘희망나비 쪽지’를 들고 ‘나눔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들께 쪽지를 전달해 드렸을 때 할머니들은 쪽지를 하나하나 읽으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들께 쪽지를 전달하고 나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저희가 돌아갈 때 저희를 한 명 한 명 보시며 정말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우리가 한 작은 활동으로도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활동 소감

이주혜 처음에는 막연하게 공모전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계획부터 진행까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팀장을 맡게 되면서 책임감과 직책에 대한 무게에 대해 배웠습니다. 5월 가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가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가족에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6월부터 진행하였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주제로 한 활동에서는 우리나라 아픈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피해자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보면서 그분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볼런티어 공모전 활동은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가질 기회와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유네스코 볼런티어 공모전에 감사하고 이런 공모전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신 유네스코 측에도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호 유네스코 볼런티어 공모전을 하면서 참 다양한 일이 있었다. 주제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여 유봉 담당자분이 바뀌었지만 연락을 못 받았던 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활동한 시간이 적다는 점 등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기억에는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번 우리 프로젝트팀 '올림'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한 명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 내심 뿌듯하다. 이번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은 나눔의 집의 안 신권 소장님이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지 의견도 말해주시고, 캠페인에서 판매할 팔찌 후원과 나눔의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가장 감사한 일은 총 4번의 강연에서 적은 인원이 참여하였지만, 자세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구나, 이 생각들이 모이면 정말 큰일을 해내는구나' 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의견이 잘 맞지 않았던 점도 있었고, 서로 원하는 방향성이 달랐지만 결국에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잘 해결되었다. 다만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활동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활동에서 가장 큰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유네스코 차세대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선승원 유네스코 볼런티어 공모전은 저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공모전이었습니다. 처음 공모전에 신청하고서 과연 예선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초조함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통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발대식을 참가하고 주제를 일본군 '위안부' 로 축소하고 교육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 힘들기도 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보내는 메시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참여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즐겁기도 했고 나눔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보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볼런티어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진행 시 협조공문, 참여자 모집, 프로젝트 홍보 등 많은 노력, 시간, 열정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광진 대학에 들어와서 이런 대외활동을 할 생각은 없었으나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 때마침 학과동기생이 같이 하자 하여 유네스코 볼런티어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들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으나, 일본군 위안부라는 약간은 예민한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대체적인 길이 잡히기 시작하자 다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정부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좀 더 와 닿았고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런 활동이 앞으로도 많아져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이 한층 발전할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소연 이번 공모전을 시작한 계기는 학교 선배와 그리고 동기들의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설레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새로 해 보는 활동이라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동기들과도 그리고 선배들과도 많이 얘기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끼리 어떤 주제를 정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함께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기에 아주 어설퍼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제로 캠페인활동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강연을 진행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설프지만 저희 활동의 참여해준 많은 시민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주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은 참여율에 좀 실망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캠페인의 경우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보여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했고 해외 사람들도 관심을 두시는 것을 보고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어른마다 생각과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도 저 많은 정보를 주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참여한다는 것이 처음엔 창피함도 있었지만, 나중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일상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설명도 하고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 뜻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인하여 참가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가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각종 캠페인 활동이나 저희가 조사를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러 강의를 하며 최선을 다하여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였고, 저도 여태까지 한 두 번 보고 넘어갔던 내용이 저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등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같은 팀원들과 소통으로 인해 친근감도 생성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자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사진



의정부 경민대 학생들, 위안부 문제 지역에 알린다

【의정부=연합뉴스】양영석 기자 = 경기도 지원부에 있는 경민대학교 학생 동아리가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민대 역사 문화 프로젝트 팀 '올함'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경민대 효행관 314호 강의실에서 지역 주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례 일쓰근 일인보 피해 문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대학이 34대경민대뉴스 자유시설

매회 강연은 2시간씩,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강연은 안산권 나눔의 집 소장 겸 국제평화인권센터 소장이 맡는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의 이후 전까지 이메일



- 1_ 팀 로고
- 2_ 가정의 달 인터뷰 영상 '가족' 일부
- 3_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관련 강연 기사
- 4_ 6월 10일 2차 강연 중
- 5_ 7월 15일 '희망나비 쪽지' 캠페인
- 6_ 8월 18일 나눔의 집 방문

지구인



동아리(팀)명	지구인		
프로젝트 명	Earth(us) Gardening		
소속 학교	중앙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박현주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	신민정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	박현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4	곽은지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5	기예림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6	박지예	중앙대학교	아시아 문화학부
7	심지웅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8	오재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9	오형석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10	이경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도 교수	김양지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활동 이야기

활동 목적

‘게릴라 가드닝’이란 도심 속 더러워진 공간 또는 관리가 되지 않는 버려진 땅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청소하고 꽃과 식물을 심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는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라는 슬로건으로 버려지고 오염된 땅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세부 내용

1. 5월 중앙대학교 게릴라 가드닝

5월 31일 처음 실시했던 게릴라 가드닝 장소는 중앙대학교 정문 앞 골목에 위치한 버려진 화단이다. 장소 선정 이후, 게릴라 가드닝을 시작하기 전, 5월 28일 고속터미널에서 화단을 다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꽃과 식물, 자갈 등을 구입했다. 화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위치해 있어 담배꽁초와 테이크아웃 컵들로 더러워져 있었다. 먼저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준비해 온 쓰레기봉투에 담고 담뱃재에 섞여 오염된 흙을 털어내고 미리 구입한 비료로 채웠다. 화단 밑 벽 부분도 사람들의 발자국과 알 수 없는 오염물들이 묻어 더러워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벽 부분도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6월 9일 처음 칠한 페인트가 다 마른 뒤 ‘花木한 삶’이라는 문구를 그리는 추가 페인트칠을 진행했다. 학교 앞이다 보니 다른 지역 보다 쉽게 추후 관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팀원들이 그곳을 지나 다닐 때마다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거나 물을 주며 관리해 오고 있다.

2. 6월 방배동 게릴라 가드닝

6월 2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로 게릴라 가드닝 장소

선정 완료 후 6월 27일 아침 10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양재동 화훼공판장 AT 꽃시장에서 분홍향달맞이, 날달맞이, 물안개 등 게릴라 가드닝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다. 방배래미안타워아파트 내 정자로 이동 후 담배꽂초 및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쓰레기 정화 작업 후 본격적으로 양재 꽃시장에서 구입한 꽃을 심는 작업을 했다. 비옥한 흙을 통해 꽃이 시들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다.

3. 7월 신사동 게릴라 가드닝

7월 25일 신사동 한 빌라 앞을 장소선정 팀이 가드닝 장소로 선정했다. 많은 회사 건물들이 위치한 신사동에서, 주차 공간 근처에 위치한 화단에 썩은 쓰레기, 음식물, 방치된 잡초 등 관리가 되지 않은 부지에 쓰레기 청소부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건물 관리인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게릴라 가드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잡초 제거 및 도구 대여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꽃을 다 심은 후에, 추후 관리를 흔쾌히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4. 8월 신림동 게릴라 가드닝

8월 29일 신림동에 위치한 놀이터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했다. 인근 초등학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는 놀이터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하다보니 그 당시,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운동하러 나오신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에 큰 관심을 받았다. 놀이터에 공터는 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대상이 되었고, 그 중 가장 넓고 지저분한 장소를 선정해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했다. 장소를 청소하고 꽃을 심는 과정에서 이 활동에 대한 주최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통해 게릴라 가드닝을 진행할수록 주민들에게 관심과 환영을 받는 것이 감사하고 신기했다.

5. 9월 이태원 게릴라 가드닝

9월 30일 이태원 골목 안에 위치한 주택가의 한 빌라 앞 버려진 공간을 가드닝

장소로 선정했다. 다섯 번의 게릴라 가드닝 중 가장 부지가 넓은 곳이었다고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온 곳이기도 했다. 빌라에서 사는 분들이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져 쌓인 듯 해 보였다.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 심지어 고장 난 벽걸이 시계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다. 때문에 최대한 오염된 흙을 털어내고 준비한 비료와 흙을 섞어 꽃을 심었다.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 위치한 땅이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콘크리트로 막혀 있거나 전선들이 엉켜있는 부분도 있었다. 최대한 전선과 그곳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또 아무래도 주거지이다 보니 지나가면서 동네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남은 화분 몇 개를 선물해 드리기도 했다.

성과

1. 환경미화

게릴라 가드닝은 말 그대로 꽃을 심는 행위임으로 당연히 환경미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에서 무단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청소하고 꽃을 심음으로써 쓰레기가 버려지던 장소를 아름답게 꾸몄다. 그리고 이것을 본 지역주민 분들은 예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쓰레기더미에 쌓여있어 보기만 해도 표정이 찡그려지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꽃 덕분에 괜스레 미소가 드는 장소로 바뀐 것이다. 또 이곳에 버려지던 쓰레기가 원래 쓰레기에 버리는 곳에 버려질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로 인해 재활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꽃도 식물이고 광합성 작용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기나 생태환경에 나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의식고취

우리가 심은 꽃들을 보며 지역주민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저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일 것이다. 더러운 장소에

쓰레기가 쌓이는 이유는 이미 더러워진 공간에 나 하나쯤 더 버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민다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삶의 여유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꽃을 볼 기회는 많지 않다. 삭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보도블럭 사이에 난 잡초나 좀 볼 뿐이지 꽃을 볼 기회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잠시나마 꽃을 볼 수 있다. 꽃을 보면서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 하는 자기착취시대와 남들과 끝없이 경쟁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 안정이나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꽃을 심은 곳을 지역주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장소는 지역사회 관계회복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작게나마 지역을 위해 개인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언젠가는 모두가 함께 그 작은 화단을 가꿀지도 모른다.

어려웠던 점

1. 장소 선정

게릴라 가드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효과적인 장소선정을 위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아 결국은 조원들끼리 장소선정팀을 따로 만들어서 서울시 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 곳이나 심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인지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게릴라 가드닝을 할 때도 지역주민분들이 이거 허가받고 하는 거 맞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다. 확실히 서울은 경직된 사회이고 유럽처럼 막 여기저기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아니면 좀 더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게릴라 가드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았다.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소선정에 도움을 주시면 기프트콘을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서는 이러한 활동의 가치가 아직 맛있는 음식을 찍는 것보다 낮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2. 꽃 공수 및 장비 운반

서울 환경은 척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강한 꽃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로 팔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대규모 도매 꽃시장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꽃을 사고 난 뒤 그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이었다. 꽃뿐만 아니라 그곳에 새롭게 깔 흙과 자갈, 모종삽 등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들이었다. 물론 서울은 택시라는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고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대규모로 지원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또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았다. 또 꽃을 심고 물을 주기 위해 우리는 물을 사야했다. 몇 곳은 지역 주민 분들이 물을 떠 주셨지만, 물 뜰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게릴라 가드닝 초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움을 경험했다.

3. 추후관리

게릴라 가드닝은 꽃을 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그치면 단발성 행위일지 모른다. 그러나 추후관리를 한다면 그 장소는 오래오래 아름답게 남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서 추후관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생활권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장소들이었기 때문에 추후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길거리에 위치한 장소들을 추후관리가 더 안되어 있는 모습들이었다. 다시 쓰레기가 있는 곳들도 있었고 잡초들이 자란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가드닝으로 실시했던 이태원은 달랐다. 게릴라 가드닝 당시 만났던 빌라 주인 분께 추후 관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을 함과 동시에 길거리에 심은 꽃들을 자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꽃과 식물이 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가 소감

우선 유네스코에 이런 뜻 깊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유네스코의 지원 덕분에 과거부터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싶었던 게릴라 가드닝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 어려움이 많았다. 장소섭외와 꽃 공수 및 장비 운반은 생각보다 고단한 부분이었고, 꽃들이 약해서 추후관리 또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팀원끼리 힘을 합쳐서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냈던 것 같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팀이 더욱 끈끈해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강해진 것 같다.

블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팀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은 인간이 지구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환경을 단지 소모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자생능력을 너무나 맹신하는 것 같다. 이는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발전주의로 인해 단기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들, 마치 ‘누군가가 먼저 버려놨으나 나 하나 좀 더 버려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심각한 개인주의로 인해 나타난 병리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을 막아보기 위해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했다. 물론 더러운 장소를 찾아 청소를 하고 꽃을 심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하는 목표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게릴라 가드닝’으로 인해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과거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던 장소를 바라보며 지역주민들이 처절한 삶과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잠시 해방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각에 맞게 게릴라 가드닝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동네 주민 분들은 많이 좋아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앞으로 이 장소를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대학생들끼리 좋은 일 한다, 애쓴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처음에는 경계하며 바라보았던 주민 분들도 자초지종을 들으면 모두 감사의 표시를 하셨다. 이렇듯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게릴라 가드닝이 단순히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이외에도 이 꽃들이 무너진 지역사회의 여유와 친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했던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척박한 도시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에 따른 환경의 소중함과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여유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좀 더 이바지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니 더욱 뿌듯한 활동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게릴라 가드닝이 더욱 성행하였으면 좋겠고, 유네스코 활동은 끝났지만 동아리차원에서 한 번씩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할 것을 다짐한다.

활동 사진



- 1_ 5월 게릴라 가드닝
- 2_ 6월 게릴라 가드닝
- 3_ 7월 게릴라 가드닝
- 4_ 8월 게릴라 가드닝
- 5_ 9월 게릴라 가드닝

캠퍼스 CC



동아리(팀)명	캠퍼스CC		
프로젝트 명	기후변화 인식 개선		
소속 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양송이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2	김소영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3	김아영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4	나형주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5	김경민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6	장태양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7	이준영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지도 교수	최도성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활동 이야기

저희 팀원 중 이준영 선생님은 실제 초등학교 교사로 영천초등학교에 재직중입니다. 선생님은 특별하게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이 예쁜 아이들은 도대체 왜 이 먼나라에 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그 원인의 끝이 ‘기후변화’라는 것에 닿아있었고, 교사인 본인마저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과 맞물려 광주교육대학교는 유네스코 학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예비 교사들의 기후 인식을 바로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모아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1. 국제기후센터 방문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교육대학교 학생(예비교사)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개선하여 교사가 되었을 때 올바른 인식 교육을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올바른 기후변화 인식 가지고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으로 저희 국제기후센터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기후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한 기후변화 인식 수준검사의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비교사들이고 나름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저희가 대부분 안 좋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시무룩해있던 저희를 찾아오신 분은 기후변화교육교사연구회 소속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위로해주시며 국제 기후변화센터 안을 체험, 관람시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익힌 저희는 향후 기후변화교육교사연구회의 도움을 약속 받으며 프로젝트의 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첫발은 기후변화의 인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후에 교사 생활에서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장소를 추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연구회와의 만남을 통해 든든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업사이클링

저희의 두번째 프로젝트는 업사이클링 활동이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버려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만든 제품은 3번째 프로젝트인 기후골든벨의 상품으로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위해 한 일은 재봉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재봉틀이라는 물건을 바로 만지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대학 내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과교육과의 가정교수님이신 이성숙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성숙 교수님은 저희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시며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재봉틀을 배우게 된 저희는 서툰 손놀림으로 하나하나 업사이클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또한 폐 우산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을 만드는 법도 같이 연구해 나갔습니다. 폐 우산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계시는 한남례 선생님을 초빙하여 폐 우산을 이용해 파우치나 가방 등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면지를 공책으로 제본하는 활동도 같이 해나갔습니다. 업사이클링 활동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들이 더 많이 알고 함께한다면 그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취지에 더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저희 예비교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리고 재봉틀 작업을 함께 하며 예비교사들에게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활동한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향후 인식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예비교사들의 지식을 확대하고 교육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골든벨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3. 기후 골든벨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의 시작,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기후변화 인식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젝트인 기후 골든벨을 저희의 마지막 활동으로 잡았습니다.

첫 프로젝트 때 저희에게 도움을 약속하셨던 기후변화교육교사연구회 선생님과 저희의 지도교수님이자 기후변화에 권위자이신 최도성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골든벨 날이 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홍보를 하고 게시글을 붙였지만 학생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자신은 없었습니다. 준비를 끝내고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왔나 보았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의 프로젝트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과 함께 기후 골든벨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퍼스 CC의 활동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고 기후변화 스토리텔링 수업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스토리텔링 수업법이란 초등생의 수준에 맞춰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기후이야기로 수정하거나 노래를 개사해보면서 즐겁게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수업법입니다.

또한 골든벨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업사이클링 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페이지로 만든 노트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업사이클링이 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예비교사들이 저희의 처음 모습과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쉬운 문제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은 과학교육과의 장영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부터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장영호 학생은 저희의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후 골든벨의 최후의 1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희는 두번째 프로젝트였던 업사이클링에서 만든 에코백 제품을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골든벨 활동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정립하고 변화할 수 있었으며 예비교사들이 기후변화 관련 수업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최종 평가

이번 기후변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캠퍼스CC 팀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적었다는 것도 스스로 성찰하게 되었고 새로운 업사이클링이라는 활동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교사 분들, 학생들을 만나며 저희의 가치도 한 단계 발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교사들, 즉 예비교사들에게 기후변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저희가 하였다라는 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으로 시작하여 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회의를 거쳐 나온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나 다음 기회에는 더 확실한 청사진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구성했던 업사이클링 활동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비추어보아 체험적인 활동을 더 늘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관한 배경지식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설문지 형태로 사전조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교육교사연구회와 협력하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최도성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넣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교사연구회의 손준호 선생님께서는 현장 교사 선배님들과 지도안을 짜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해 보는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가 기후변화교육과 관련된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현장교사 선배님들의 도움을 빌려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시연해 본 뒤 피드백을 통해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더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캠퍼스CC 2기는 앞에서 말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남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은 아쉬움과 착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캠퍼스CC 팀은 교육대학교 학생들, 예비교사들에게 또한 나중에 그 교사들이 가르칠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새내기 아이들에게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씨앗이 싹을 틔워 기후변화를 막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 사진



1



2



3



4



5

- 1_ 국제 기후환경센터에 방문하여 팀원들의 기후변화 소양 쌓기
- 2_ 이성숙 교수님께 재봉틀 기초 수업 듣는 중!
- 3_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들
- 4_ 예비교사들의 업사이클링 체험
- 5_ 기후 골든벨

크레센도



동아리(팀)명	크레센도		
프로젝트 명	배제에서 포용으로		
소속 학교	한신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황혜림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2	권준희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3	최소의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4	박희성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5	홍창교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6	이찬희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7	안동근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8	송지하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지도 교수	강순원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활동 이야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근거하여, 크레센도는 평화인권의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고자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우리 팀의 첫 번째 활동인 'LTLT'는 '사회복지법인 애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었다. 날이 따뜻했던 5월 26일, 거제에서 생활하시는 애광원 거주민분들이 경기도 오산까지 먼 걸음을 달려 와주셨다. 몸이 비교적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차에서만 5시간을 보내기는 힘든데 그렇게 먼 곳에서 와주셔서 괜히 초대한 건가 하는 걱정도 됐고 한 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한 후 축제를 같이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편견이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마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우리 팀에 속한 친구들과 거주민분들과 한 명씩 짝을 이뤄 축제의 장터들을 구경하며 즐겼는데 확실히 일대일로 짝을 이뤄 같이 다녀서 그런지 겉으로만 친해지는 것이 아닌 깊은 유대감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저금통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그 때 만들었던 저금통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자 첫 활동의 결과를 마지막 활동인 장터 부스에서 사용하였다. 프로젝트의 첫 활동이 평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을 깨고 앞으로 있을 다른 활동에서 만날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글로 아닌 직접 몸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LTLT에 속하는 두번째 활동은 우리가 직접 거제에 방문하여 봉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여름방학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던 8월 22일부터 26까지 총 4박 5일 동안 거제 애광원에 머물며 이번엔 우리들이 그 분들의 생활을 느껴보는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장애인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애체험이 진행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냈다. 5월에 학교에서

뵈었던 분들을 하루빨리 만나 뵙고 싶었지만 그 분들과 지내며 만에 하나 있을 실수로 그 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마음을 참고 강연을 더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분들을 만나는 둘째 날에는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평소 아침보다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다. 각자 한 명의 짝지와 에코백도 꾸미고 팔찌, 목걸이 그리고 반지를 만드는 비즈공예도 하였다. 셋째 날에는 사회적응활동으로 기관 근처의 영화관에 가서 ‘국가대표’ 라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원래 친했던 친구와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다는 느껴졌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지체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산책도 가고 화채도 만들어 더위를 이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날인, 넷째 날에는 함께 유리창에 그림도 그리고 서로 노래, 춤으로 장기자랑도 하였다. 서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려는 귀여운 모습에 많이 웃었다. 이렇게 애광원에서의 짧다면 짧게,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동안 우리는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성장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바와 달리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어려워 답답한 마음도 가지긴 했지만 점점 날을 거듭해나갈 수록 그 분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4박 5일 동안 애광원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시는 구나라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두번째로 주된 활동인 ‘지니 프로젝트’는 화성장애부모협회에 속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성인들과 함께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은 총 6명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여자 한 명에 남자아이가 다섯 명으로 구성했다. 아이들 특성이 각자 다른 만큼 아이들의 소원도 다양했다. 우리는 최대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노력했고 그 첫 시도가 영화 관람이었다. 함께 점심식사도 하고 ‘정글북’ 이라는 영화도 관람하였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라서 에너지도 넘치고 활동 반경도 넓어서 팀원들 전체가 케어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 우리끼리 움직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음 만남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일까봐 걱정이 많이 되어 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 성격과 특징대로 어떤 방법으로 대할 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첫 만남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니 프로젝트 2차 활동으로 ‘하늘 땅 랜드’ 를 다녀왔다. 그 곳에 도착하여 점심과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수영장에 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옆에 있는 물 썰매도 타고, 중간에 시원한 수박과 달달한 간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뜨거웠던 몸을 물놀이로 차갑게 식히고 트램폴린에서 다 같이 뛰어 놀았는데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도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다음으로 동물 먹이주기를 하며 자연에서 자유롭게 있는 다양한 동물도 만났고, 만난 동물들과 교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니 프로젝트의 3차 활동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노래방을 갔다. 노래방을 가기 전에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과자와 음료수 직접 고르고 사게 하였다. 노래방에서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우리들도 동화되어 기쁘고 행복했다.

지니 프로젝트 마지막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천안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들이 대중교통(기차)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점심식사를 하고 미나릿길 벽화마을로 이동하여 벽화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들만의 추억을 쌓았다. 아직 가지지 않은 더위로 다들 땀도 많이 흘리며 더워했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아닌 언니, 오빠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천안삼거리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원에서 아이들과 축구, 비눗방울 불기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공원을 떠나기 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우리와 네 번의 만남을 해줬다는 고마움과 각자의 장점을 칭찬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상장을 수여하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때가 아이들에게겐 최고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다. 더불어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앞으로 함께 잘 놀아주며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했던 걱정이 마지막 만남에서는 친동생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으로 바뀌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유대감을 잘 쌓았구나.' 하며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팍팍한 대학생활 중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오히려 우리들이 많은 힘을 얻어가게 되었다. 지니 프로젝트의 마지막 활동인 만큼 아이들과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 아쉬운 감정이 들었다.

마지막 활동으로 원래 계획한 도담도담 프로젝트 대신 교내에서 장터 부스를 운영하였다. 초기에 하려 했던 도담도담은 한신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가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지만 이번 연도에 한신어린이집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인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교내 장터 부스활동을 진행했다. 주로 후원 팔찌판매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었다. 이전의 일방적인 정보통보식 방법의 홍보와 달리 게임 형태로 진행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재미와 홍보를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부스에서 LTLT 1차 활동 때 애광원 분들과 함께 만든 저금통을 배치하여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을 높였다.

우리 팀의 프로젝트 중 후원 팔찌 제작 및 판매는 활동기간 전반에 걸쳐 진행하였다. 팔찌제작 재료 구입부터 제작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활동 기간 내 내 틈틈이 제작과 판매를 진행하였고 그 수익금은 장터 기부금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10월 31일, '크레센도' 이름으로 기부 하였다.

5월부터 시작된 짧지만 5개월의 시간동안 여러 활동들을 통해 우리 팀이 추구했던 바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 라는 것의 소중함 및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장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지금의 현실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바꾸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목적의식을 전했기에 만족하는 활동이었다. 또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약되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였던 것 같다.

특히, 지니 프로젝트에서 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은 후 아이들의 부모님이 “혼자만의 세계에 있던 아이가 누군가와 함께하며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시간으로 여겨 집니다.” 라고 말씀해주실 때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고 이 활동을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많은 교훈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또한, 비록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의 인식과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소한 배려와 시선이 지속되길 바란다. 더불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길 바라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LTLT1차_ 애광원 부스
- 2_ LTLT1차_저금통 만들기
- 3_ LTLT1차_ 크레센도 지도 교수님과 함께
- 4,5_ LTLT 2차_ 애광원 방문
- 6_ 지니 프로젝트 1차 - 영화관

활동 사진



- 7_ 지니 프로젝트 1차 - 영화관
- 8,9_ 지니 프로젝트 2차 - 수영장
- 10_ 지니 프로젝트 2차 - 노래방
- 11,12_ 지니 프로젝트 4차 - 기차여행

활동 사진



13_ LTLT4차_ 기차여행

14_ 장터 부스

15_ 크레센도 후원 팔찌

프론티어



동아리(팀)명	프론티어		
프로젝트 명	더 필 - The Pill		
소속 학교	한남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류창민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2	서유빈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3	이재훈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4	노의림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5	조한나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6	노혜지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7	강초롱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8	노홍아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지도 교수	김기태	한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컬처

활동 이야기

폐의약품을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폐의약품의 바르지 못한 처리는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THE PILL 팀은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서 폐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들을 올바르게 수거하여 처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유통기한 존재유무를 인지하여 가정 내 약물오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폐기처리방법을 통해 환경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더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폐의약품에 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남대학교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캠퍼스 내와 주변 아파트, 그리고 벼룩시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폐의약품을 지정된 수거함에 버린 비율이 일반쓰레기통에 버린 비율보다 약 32% 정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 3개월 후 재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 사람들의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THE PILL 팀은 폐의약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치 있는 문구를 넣은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카페들을 중심으로 컵홀더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SNS계정(Instagram) 음료이벤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 수단의 하나로 THE PILL 팀의 취지에 맞는 문구를 넣은 홍보 피켓을 제작하여 바자회나 벼룩시장 등의 활동 시에 들고 다니며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주변 친구들의 깨끗한 물품들을 모아 주변지역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벼룩시장과 교내 바자회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한 수익금을 위한 행사참여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폐의약품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은 기부하여 더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학교 건물 및 구, 신관 기숙사에 비치하여,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기숙사 및 자취생들에게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폐의약품 수거함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여 올바르게 폐의약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의약품 수거함보다 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보관법을 지키지 않아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주변 2개의 약국에 유통기한 스티커를 배포하여 주민들이 약을 구입하거나 받아갈 때 직접 스티커에 유통기한을 적고 그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제작한 유통기한 스티커를 통해 단순한 홍보뿐만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유통기한을 기입하여 이후에는 올바른 폐의약품 처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THE PILL 팀은 수많은 홍보활동 캠페인의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비치를 늘리는 것과 그린약국 제도의 도입이라는 최종적인 방안에 도달하였습니다. 우선 폐의약품을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곳에 비치함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린약국이란 2008년 서울시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그린약국’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했던 제도입니다. 그린약국으로 지정이 된 약국은 약사감시 등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국민을 상대로 깨끗하고 청렴한 약국이라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 팀은 기본적으로 봉사 동아리에서 모인 팀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참여 위주의 활동으로 팀원 대부분이 공모전 참가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활동하는 분야에 어렵고 생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청이후 첫 회의를 진행하였을 때 팀원들 얼굴에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서투른 표정들이 생생합니다. 그러던 중, 팀원들 하나하나 각자의 의견을 내고 머리를 맞대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식 팀 이름도 지으며 활동에 대한 애정도 쌓여갔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몇 차례 회의를 가지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일들과 지향하는 방향을 조사하고 알게 되며 저희가 맡은 일들이 얼마나 뜻 깊고 의미 있는 기회인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받았던 합격 결과는 뿌듯한 마음과 신기하고 미묘한 감정이 공존하면서 저희 팀원들의 대학생활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기획한 이벤트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희 팀에 관심을 주시고, 활동에 참여 해주시는 분들과 교수님, 학교 주변의 반응 등은 저희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이기에 팀원 각자의 스케줄과 학과생활 등의 문제로 활동이 힘들었던 적도 있기 마련이었고, 서로의 다른 견해로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도적인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팀의 주제를 알리기보다는 더 나아가 지역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제한된 시간과 구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가 저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THE PILL 팀은 이것을 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루지 못한 목표를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 저희의 뒤를 이어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컵홀더 스티커홍보, 설문조사 및 이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희 팀이 목표로 삼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 인식 개선이 효과적으로 홍보된 성과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뜻 깊은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론티어, THE PILL 팀의 활동이 유네스코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사진



- 1_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한 폐의약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
- 2_ 5월, 유성 흙플러스 광장에서 진행한 더필-바자회 모습
- 3_ 한밭수목원 행사모습. 설문지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폐의약품 수거활동 등
- 4_ 홍보 활동
- 5_ 학교 근처 카페를 중심으로 더필 유네스코 홍보 스티커 배포(컵홀더)
- 6_ 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와 교내를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약 500장)

한올한올



동아리(팀)명	한올한올		
프로젝트 명	한올한올 프로젝트		
소속 학교	경남대학교, 창신대학교		
팀원	이름	학교	학과
1	김범준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	홍소영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3	조은현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4	조미란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5	김지현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6	이해민	창신대학교	음악학과
7	이신지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8	백송희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지도 교수	유영재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활동 이야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우리 한울한울 프로젝트는 다문화어린이 합창단과 공익광고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의 다문화 시범학교인 유목초등학교를 찾아가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초등학생들의 자원을 받아 20명의 아이들과 함께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동체 약속정하기, 글로벌 퀴즈, 다문화 마인드맵을 통해 다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문화 동영상을 시청하고,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함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가사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가사를 바탕으로 한울한울팀 만의 합창곡을 제작하였습니다. 합창곡을 연습 하고 서로 어울리며 아이들은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발표회까지 끝마친 아이들은 겉모습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래를 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부터 발표회를 마치기까지 전 과정들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연출된 것이 아닌 실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익광고 영상까지 만들었고, 아이들과 다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울한울팀은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비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편견 없이 어울리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울한울 합창단을 함께 한 아이들은 문화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성과를

언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처음 시작을 함께했던 인원 중 일부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는 8명의 아이들만이 남아 프로젝트를 마쳐야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합창단에 의욕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한 8명과 끝마칠 수 있어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프로젝트 보다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볼런티어 프로젝트는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울한울 팀과 같은 대학생들이 볼런티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활동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 사진



1 2



3 4



5 6



- 1_ 한울한울 프로젝트 소개
- 2_ 자기소개 및 이름표 제작
- 3_ 공동체 약속 정하기 작성
- 4_ 다문화 마인드맵
- 5_ 글로벌 퀴즈
- 6_ 다문화 동영상 시청

활동 사진



7



8



9



10



11



12

- 7_ 지니 프로젝트 1차 - 영화관
- 8_ 합창곡 가사 제작
- 9_ 합창곡 연습을 위한 발성 연습 / 합창곡 연습
- 10_ 발표회
- 11_ 프로젝트 종료 후 인터뷰
- 12_ 기념품 제공

2016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보고서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날 2016년 12월 30일
주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세대팀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 04536
전화 02-6958-4143
팩스 02-6958-4254
이메일 youth@unesco.or.kr
누리집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YT2016RP5

역은이 신미아, 김보영
디자인 금강기획인쇄
사진 2016 유네스코 볼런티어 프로젝트 참가자

